

● 발행처: 한국아나뱃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 www.wkaf.net ● 발행인: 남상욱 ● 편집장: 문선주  
● 편집위원: 배용하 엄혜정 한준호 ● 발행일: 2021. 6. 30 ● 창간일: 2012. 7. 12 ●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매죽현로1176번길 8-54 ● 전화: 041-742-1424 ● e-mail: byh1424@gmail.com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 편집인의 글

## 신앙과 삶이라는 열차의 두 선로



한준호 형제  
진해주빌리메노나이트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저 먼 피안의 세계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땅 위의 세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한 반응으로서 얼마 전 위안부 관련 논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마크 램지어 교수에 대한 생각과 글들을 실었습니다. 그는 메노나이트 출신으로 일본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으며, 그의 부모는 히로시마에 메노나이트 교회를 세우고 히로시마 World Friendship Center(WFC)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정의와 평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메노나이트와 그가 보여준 상반된 행동 사이에서 오는 심각한 인지부조화 현상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과 삶은 열차의 두 선로와 같아서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온전히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삶의 모습은 신앙의 내용을 증명하지요. 그러한 신앙을 삶 가운데 살아낼 때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소유'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맘몬, 즉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 가치관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선택

의 기로에 놓였을 때, 혹은 자산 증식의 좋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과연 예수의 가르침과 성서적 가치에 합당한 선택인가를 진지하게 분별하기 보다는 기존의 상식과 사회적 도덕관념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저널에서는 LH 직원들과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회 지도층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투기를 통해 부를 획득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며, 성서적 경제관은 어떠한가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로 인해 얻은 정보를 통해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이나 토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로 인한 불노소득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서적 경제관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성서적 토지법에 대한 글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널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편집위원들이 가지게 되는 고민은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저널을 만들 것이며, 또 누구에게 글을 받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정된 인적자원과 여건 속에서 매번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필자에게 글을 청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단지 주제만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나뱃티즘, 즉 우리의 신앙 내용과 크게 달라서는 안 되기에 외부 필진을 섭외하는 일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저널이 벌써 22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지체들과 관심과 참여로 섬겨주시는 지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 많은 필자들이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더 풍성해 지기를 바라며 편집인의 글을 마칩니다.

지난호 저널은 [www.wkaf.net](http://www.wkaf.net) / [www.anabaptist.kr](http://www.anabaptist.kr) 에서.

## 일상의 감사로 돌아갈 날을 기도합니다



남상옥 형제  
KAF대표 / 춘천예수총교회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 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집단 면역이 달성되어 다 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만 변종 바이러스가 걱정입니다. 언제 다시 예전 일 상으로 돌아가 한 예배실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날이 올지 예측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 단절이 깊어 진 이 시기에, 진정한 성도간의 교제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 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사귀어 있게 하시고 지체들과 교제케 하셔 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진정한 깊은 교제란 어떠한가 하는가를 생 각하게 됩니다. 성도간 교제에 대하여 머리 속에 정리된 것은 없지만 마음속 으로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 드린 대로 비록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 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여러 생각들이 잘 나누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나뱃티스트 정신이 계속 새로워 지고, 아나 뱃티스트 정신에 관심 가진 개인들이 계속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서로가 서 로를 세웠으면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는 잠언 말씀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소망하며 KAF 저널이 이 일에 좋은 매체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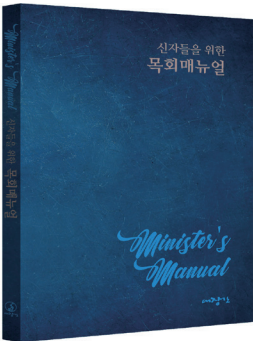
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정의로운 평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나뱃티스트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연결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KAF 총무 배용하 형제님, 3대 편집장 문선주 자매님, 편집위원으로 섬겨주시는 염혜정 자매님 그리고 한준호, 배용하 형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남상욱 드림

## 신자들을 위한 목회 매뉴얼

좀 렘펠 편집 | 김복기 옮김 | 대장간



### 예배인도자를 위한 선물

당신이 예배 인도자로서 임무를 맡았다면, 우선 이 매뉴얼에 담은 오랜 예배와 삶의 여정의 흔적을 살펴보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이 책에 실린 언어들에 고쳐 써가면서 전달해보라.

만약, 당신이 준비하는 예배가 회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면,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예배 인도자들에게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작은 책자는 교회사에서 교회와 예배에 남다른 사랑을 보여준 메노나이트들의 나이테이기도 하다.

## 그리스도인은 부자여선 안 되는가?



한준호 형제  
진해주빌리메노나이트교회

### 부의 불평등

우리나라는 IMF를 지나면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 더 심화되었다. 그 이전부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이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유해졌으며 부의 불평등 문제는 지금처럼 계속 성장해 가면 점차 해소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IMF를 지나며 고통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기초 개념 중 '소득 5분위 분류'가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눈 것인데 덴 에리얼리 듀크 대학 교수와 마이클 노턴 하버드 대학 교수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소득 5분위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최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가 국가 전체 자산에서 얼마를 차지할 것 같은가?"라고 말이다. 그들은 58.5%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다음 중 상위층은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답하였으며, 중위층은 12%, 중하위층은 6.4%, 최하위층은 2.9% 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실제 통계는 이들의 예상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최상위 20%의 사람들이 무려 84.4%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중상위층은 11.3%였으며 중위층은 3.9%, 중하위층은 0.2%, 최하위층은 0.1%에 불과했다. 최상위 그룹의 재산이 최하위 그룹의 재산보다 무려 845배나 많았다.

에리얼리와 노튼은 자신들의 논문에서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최고경영자인 CEO와 일반 직원의 임금 차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를 물었는데 객관식 문제다. 5배, 10배, 50배, 100배. 이에 대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2014년 미국 CEO들이 받았던 연봉은 일반 직원에 비해 무려 370배가 많았다. 공개된 연봉만으로도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돈까지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그보다 더 할 것이다. 이것이 슬프게도 미국만의 현실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더 비극적인 것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지나면서 그 간극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맞이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3포 세대를 넘어 5포 세대, 7포 세대란 칭호가 따라 붙었다. 즉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내집 마련, 대인관계 포기. 더 나아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에서 보여지듯 경제력이 결국 세대를 넘어 후손으로까지 이어가는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 이상 노동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자본이 창출하는 부가 노동이 창출하는 부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부의 창출 수단이 노동이 아닌 자본에 있기에 주식과 비트 코인같은 가상 화폐가 새롭고 유일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각광 받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와중에도 여전히 불패 신화를 이어오는 부의 축적 수단은 부동산, 땅이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가상화폐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의 참여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비해 적다. 하지만 자본이 넉넉한 이들에게 집과 토지는 여전히 부의 축적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진

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드러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면이 잘 드러난 사건이다. 그들만 그리하고 있을까? 500채, 700채의 집을 소유한 개인들이 있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토지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는 일인가? 성서의 대답은 '아니' 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 저널의 다른 글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라?**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 왔는가? '부' 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전하지 않았던가? 설교 강단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 중 한 사람이 록펠러일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 말들 중 예배 때 가장 앞에 앉고, 목사에게 잘하고, 십일조를 잘 하라는 말들을 강단에서 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2, 제3의 록펠러가 되라고 외치지 않았던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 하여 내가 잘되고, 가족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목소리 높이지 않았던가?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출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어떻게 그 자녀가 가난할 수 있으며, 믿는 자가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가르쳐 부의 축적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복의 증거로서 여겨지게 하지 않았던가. 투기한 LH 직원들 중 기독교인들은 없었을까? 그들의 직위로 인해 먼저 알게 된 소위 고급 정보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라 여기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노라고 주변에 간증 아닌 간증을 하지 않았을지 염려가 되는 것은 너무 과한 생각일까? 교회가 5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라 불리는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잘 믿어 부자 되라는 것뿐이라면 민중의 아편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성서는 ‘부’ 에 대해 무엇이랴 말하는가?

성서가 ‘부’ 에 대해 단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우리가 느끼는 혼란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구약에서 기술된 ‘부’ 에 대한 묘사들은 어떤 본문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 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선지서와 같은 곳에서는 ‘부’ 라는 것이 약한자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혼재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신약의 경우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은 동일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로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8복이라는 유명세를 얻었지만 누가복음은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누가복음은 8복에서 그치지 않고 마태복음에는 다루지 않는 7화까지 다루어 앞서 말한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 소위 영적이거나 추상적인 해석을 용인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는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라 말하는 마태복음의 본문이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더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 를 ‘겸손한 자’ 라 해석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말은 그 말을 더 가볍게 해 준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그 말씀조차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과 함께 볼 때 누가복음의 의미와 다르게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등 예수님의 부에 대한 태도는 선지서들의 태도와 맥을 같이한다.

## 그렇다면 ‘부’ 는 나쁜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부자’ 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 가 무엇이며, ‘부’ 를 이루는 수단과 과정은 어떠한



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대답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부’ 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 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은사’ 즉 ‘선물’ 과 다름이 없다. 즉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안락을 위해 (가족은 개인의 확장이니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은사’ 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즉 지체들을 섬겨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되도록 사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부’ 도 예외는 아니다. 성령이 강림한 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드러난 가장 강력한 표적은 바로 ‘소유’ 즉 부의 나눔이었다. 교회 안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었다는 표현은 ‘부’ 가 ‘은사’ 로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이라면 모두가 ‘머리’ 일 수 없고, 모두가 ‘손’ 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부자’ 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나?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 이룬 ‘부’ 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 이라 하며,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나눠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경계 지점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에 놀라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시화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맘몬이 무너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경계 지점이다. 그 경계 지점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 결실이 어떠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부’ 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 이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부’ 가 주어지는 과정과 방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재정관으로 칭지기론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 가르침은 주어진 재물을 어떻

게 사용하느냐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부론과 같이 개인적 윤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시장이 ‘신’이 되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일상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과연 깨끗한 부자라는 것이 개인적 윤리 차원으로 실현 가능한 것일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과연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가?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국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는 사태를 낳은 일부 재정 정책과 무역정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율을 위반하는 죄”라는 말은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착취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고 있다면 그를 통해 얻어진 ‘부’를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사유화 하여 획득한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 수는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투자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것들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과 같은 방식도 우리는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 시장의 본질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고 이익을 분배받을 권한이 있는 보증서(주식)를 사고 파는 행위이다. 이러한 주식 시장에 있어 도덕적인 문제는 주주들의 높은 배당금을 위해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저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에 있다. 주주로서 실제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높은 배당액에만 관심을 가지는 태도에 대해 성서는 ‘탐욕’이라 하며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말라기 3:5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술수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같은 범죄 부류에 속한다고 말씀한다.

그러면 주주로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

하며 ‘부’를 얻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아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배당금이 높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주식을 산 사람이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땀과 노동으로 사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그것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율을 위반하는 죄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일견 송강호씨 가족과 지하에 숨어 사는 이가 ‘기생충’ 같아 보이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누가 누구에게 기생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테크의 핵심 요지는 “돈이 돈을 벌게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라 하여 우리가 무작정 취할 수 있는 방법일수는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를 이루는 과정과 수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요지를 단순히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천덕 신부는 ‘주식’을 한다면 어떤 기업에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높은 배당금을 위해 누군가 착취당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살펴며 청지기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실업자와 불운한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며 그들은 ‘자비’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게 될 것이라 말한다. 미가서 6장 8절은 ‘정의’를 첫 번째로, ‘자비’를 두 번째로, 종교(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세 번째로 놓고 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의’와 ‘자비’에 유의할 것이다.

###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리스도인은 부자여선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부자여선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시는 부자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가운데 정의되고 있다. 이 땅의 부자는 재물을 이 땅위에 쌓아두는 사람이지만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

에서 드러나는 ‘복’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이 둘이 어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수단과 방법이 어찌 동일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자여야 하는가? 그 과정에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고 있는가? 제 아무리 큰 이익을 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정의’가 무시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도 ‘부’가 자신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은사’요 ‘선물’이니 청지기로써 그 역할을 다한다면 그가 바로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8~10)

## 토지에 대한 교회의 기억

2021년 아나뱃티스트 저널 봄여름호에서는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처음 한국에 기독교를 소개해 준 선교사들은 어떻게 토지와 부동산 문제를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모든 사례를 살필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례를 남긴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애초부터 토지문제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 주었다면 21세기 한국의 현실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미련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2013년 ‘교회와 민족’ 특별강좌 중 ‘한국 교회와 선교사-선교사의 정착에서 교회 분열까지’를 주제로 진행된 내용이 많은 부분 발췌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원로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에 의하면 “1884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입국한 후 1945년까지 내한한 개신교 선교사가 1,52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 미국인이 1,0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내 입국 선교사들은 국가뿐 아니라 교파도 매우 다양했는데, 선교 활동에 있어 교파 간 마찰 방지를 위해 선교지역 분할정책인 ‘교계예양(敎界禮讓·종교의 경계를 예의로 양보한다)’을 실시했고 그 규칙은 △5천명이

상의 대도시는 공동 점유, 공동 사역 △소도시는 한 선교사가 점유하면 선점을 인정하고, 6개월 이상 활동 중단 시 누구나 사역 가능 △사업 시작 또는 확장 시 미점유 지역 권고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에서 30년간 선교활동을 펼친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John L. Nevius)의 '독립, 자립의 진취적인 토착교회' 설립을 위한 선교방법이 한국 선교에 적용되면서 한국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비우스(Nevius) 선교방법'이라 불리는 이 선교 정책은 본토의 전도인들에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자립의 원칙을 세워서 다른 선교 교단으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전도하고(자전), 스스로 유지하고(자급), 스스로 다스린다(자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선교본부가 한국 선교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판단해 선교사와 선교비용을 많이 보내지 않았던 상황에서 채택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자급자치의 원리 하에 희생과 봉사라는 기독교 윤리를 심어줬으며 교인들에게 자립정신과 규칙적 헌금 습관을 가르쳐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교회 안에 계급을 형성 시켜 임원진에 의해 교회가 좌우되고, 자급 운영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교회재정을 교회 운영에만 사용하고 사회복지 등에 재정을 써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만열 교수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선교사들의 한국에서의 생활 모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교사들은 한국인들과 분리된 자신들만의 세계인 '선교 구역'을 구축해 생활했다"며 "그들의 거주지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분리됐으며 소위 '축소된 미국', '그림 같은 유럽풍의 집'으로 불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유럽산 식기와 한국에서 구경 할 수 없는 밀가루, 설탕, 버터, 파인애플 등을 먹고, 여러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기도 했다”며 “선교사들의 이러한 풍족한 삶은 같은 선교사들 사이에서 혹은 그들을 파송한 현지에서도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선교사들의 상업적인 활동도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교수는 이런 선교사를 ‘미국 자본주의 전달자’ 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국주의의 힘을 등에 업고 선교가 진행되면서 이런 현상은 세계 각지의 식민지에서 볼 수 있었던 광경이라 여겨집니다. 이만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알렌 선교사는 한국 도자기와 골동품을 모아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팔았을 뿐 아니라 운산 금광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주한 영국총영사 관계자는 선교사를 “상업의 탐험가요 개척자들”이라고 수식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무역에 가장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농기계와 기구, 석유 등 교역상의 편의를 위해 중국 상해에 은행구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선교를 그만두고 금광에 취직,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축적, 상업적인 과수원 운영 등 상업 활동에 열을 올린 선교사들이 많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기독교면려연합회 창시자인 프란시스 클락은 “해외 선교가 수출의 증가와 우리 제국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기독교 초기에 보여준 제국주의에 깊이 연결된 선교사업은 교회와 자본주의적 상술이 구분이 되지 않은 채, 한국교회에 이미지화되었을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이 같은 선교사의 행태는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이 됐고,

1920년대 한국에는 선교사 배척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선교사들의 교육, 출판, 의료, 사회사업 등 긍정적인 활동도 활발했지만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한국 땅을 밟은 초기 선교사들이 환대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사양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윌리엄 홀(William J. Hall)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평양으로 이주, 그곳에 머물며 한국의 평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맥킨지(William J. Mckenzie) 선교사는 황해도 소래에 홀로 들어가 가능한 모든 면에서 한국인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았고 동료 선교사들의 보급품 지원도 거절했다”며 “결국 그는 극심한 과로와 영양결핍 등으로 고생하다 한국에 온지 2년이 못되어 순교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교단과 달리 6.25를 마친 폐허에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황폐해지고 한국민이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 메노나이트들은 교단을 한국에 세우기 위해서가 아닌, 그들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고, 이름 없는 그들의 일은 조용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950년 10월 한국정부는 최초의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Mennonite Central Committee, MCC) 직원의 입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는 유엔산하에서 MCC의 간접적 대표자격으로 일을 시작하게 하게 됩니다. 그 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MCC는 달다스 보랜을 한국에 파견하는데, 그는 부산에 있던 민간협회본부에서 봉사단체 연락사무관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일 년후인 1953년에 어니스트 레이버와 테일 위버가 부산으로 건너와 봉사 활동에 동참하였고, 같은 해 MCC는 한국대표부를 대구에 설립하고 본격적



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초창기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한국에 온 메노나이트들의 뒤를 이어,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부터 MCC활동이 마감되는 1971년까지 20여 년동안 총 74명의 메노나이트 봉사자들이 한국에서 MCC를 통해 활동을 했습니다.

1953년부터 1971년까지 20여년간 MCC가 한국에서 한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활동들은 4가지 정도로 요약 될 수 있는데; 물자구제사업, 메노나이트 직업학교, 가족/어린이 지원 프로그램, 전쟁 과부들을 위한 재봉기술 교육 등입니다.

그 밖에도 병원자문봉사, 지역개발봉사, 기독교 어린이 위탁 훈련교육 등의 다양한 구제, 교육, 지역개발 사업들이 대구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MCC의 한국 사역들은 1971년 메노나이트 직업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최종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MCC가 한국활동을 마감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MCC가 한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선교와 구제/봉사 사역을 구분하여 수행한다는 독특한 고 철저한 원칙이 있는데, 초창기의 메노나이트 사역자들은 한국 내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메노나이트가 해야 할 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구제와 봉사를 맡는 MCC의 활동은 70년대 들어 안정되고 있는 한국의 활동들을 정리하여, 더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그 활동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 결과 20여년간의 오랜 활동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메노나이트 교회는 생겨나지 않게 되었고,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1970년 MCC 그 동안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끝마치기로 결심했고 1971

년 3월 31일로 그 날짜를 정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그 동안의 맑은 바 사역을 마치고 다신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자신들 대신 직업학교의 기초를 계속해서 세울 수 있도록 MCC는 얼마동안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MCC는 메노나이트 직업 학교의 책임자로서 당시 경북 대학교 총장과 그의 5~6명의 사람들을 지명했고 직업학교의 모든 운영을 맡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메노나이트 직업학교 이사진들 중에는 당시 계명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초대 받은 몇몇 사람들도 있었는데, 메노나이트 직업학교는 이들에 의해 계명대학교로 귀속 되었습니다.

직업학교의 몇몇 동문들 중에는 한국의 메노나이트 센터가 지난날의 대구 근처 메노나이트 직업 학교 자리에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 MVS가 계명대학교에 의해 인수되었기에 당시 예배실, 놀이터, 묘지로 쓰이던 땅의 일부를 환원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직업학교가 계명대학교로 귀속된 후 그 땅과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는 MCC가 명시하고 작성한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에 불과할 뿐일 듯 합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와서 모든 것을 쏟아 붓고도 아무것도 한국인으로 부터 취하지 않고, 심지어는 메노나이트 교단도 심지 않고, 사용하던 땅과 건물조차 공문서 하나 남기지 않고 들어온 그대로 나간 아름다운 행적은 한국교회가 잊고 있던 토지의 주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편집부〉

## 성경의 토지법

하나님의 경제법은 공의에 관한 법과 자비에 관한 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전자는 사회구조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개인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자비에 관한 경제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공의에 관한 경제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토지법은 그런 경제법의 근간을 이룬다.



전 강 수 교수  
희년함께 지도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  
부동산학과 교수

### 1.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토지는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 사회의 전체 경제도, 한 개인의 경제생활도 토지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다. 성경의 토지법은 이렇게 중요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법이다.

성경의 토지법은 레위기 25장에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23절에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상기시키면서까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기업(基業 inheritance)을 전제로 한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지파 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셨는데, 이 때 분배된 토지를 기업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서 모든 가족이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 준다. 23절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각 가족이 각자의 기업을 누리는 이상적인 상태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다. 토지를 한번 팔면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레위기 25장 13절 - 17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을 보고서는 성경이 토지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토지를 영영히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그것은 판매가 아니라 임대해당한다. 이렇게 사용권의 한시적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가장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팔아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4절 - 27절(“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리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열매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에서는 토지를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토지 대금을 마련하여 ‘무르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절에서는 희년

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령한다. 이것은 설사 토지를 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조건 없이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희년은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난 다음 해, 즉 50년째를 말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레 25:10)하는 일의 기초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신분상의 자유만을 주는 것은,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난해질 수 있는 자유, 구걸할 수 있는 자유, 이곳 저곳을 방황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노예해방 당시에 많은 해방된 노예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예전의 노예주에게 돌아와 일자리를 구걸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실직자와 노숙자가 생겼는데, 이들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었다면 등 불일 자리 하나 찾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2.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성경의 토지법

레위기에 나타난 토지법의 정신은 다른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는 모두 24 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장 - 22장 까지가 전적으로 토지의 분배를 다루고 있다. 토지의 분배를 결정할 때 제비 뽑기로 한 것이라든지, 미리 지형의 조사를 철저히 행했다든지, 기업이 할 당된 다음에는 지계표를 설치하여 절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은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평등한 분배와 기업(基業)의 유지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가를 보여준다.

선지서 중에서도 레위기 토지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토지를 집중한 사람들에게 대한 격렬한 책망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5:8)라는 구절과 "침상에서 악을 꺾으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도다"(미2:1, 2)라는 구절은 대표적인 구절들이다.

오래 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의해 통렬하게 비난받았던 토지 집중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류의 역사는 토지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에 와서도 많은 지역의 경제문제의 근원에는 토지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을 무시한 것이 복잡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해 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토지법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법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현대 사회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정신을 공의(義)와 자비(仁)와 믿음(信)이라 하시며 미가서 6장 8절의 구약 정신("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적용되길 바라셨다.

### 3. 헨리조지와 토지가치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근대 경제학의 개념과 논리를 가지고 성경적 토지법의 정신을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성경적 토지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토지사유제가 얼마나 불의한지, 또 그것이 어떤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과학적인 논리를 사용하여 명쾌하게 밝혔다. 조지에 의하면, 빈곤과 주기적 불황 등 현대 사회를 괴

롭히는 심각한 경제 문제들은 토지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는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라는 대안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경적 토지법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조지가 말하는 토지가치세란 하나님이 만드신 토지와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용에 대해 사회에 지불하는 대가와 같다.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토지와 자연자원을 사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 대가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토지사용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소유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그것만 확보하면 땀 흘리지 않아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토지가치세를 징수하면 개인이 토지를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토지가치의 혜택을 공평하게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탁월한 현대적 방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토지가치세는 좁은 의미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와 함께 여타 자연 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는 혜택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기 때문에 예상 외의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를 논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환경세나 환경 관련 부과금은 토지가치세 개념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 수입은 정부의 공공 경비를 조달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 토지가치세를 징수하면 정부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기업가와 근로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생산을 자극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쳐 왔다.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비봉출판사 역간)은 19세기 말까지 수백만 권이 팔려서 영어로 씌어진 년픽션 저작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근대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쑨원(孫文)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조지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대표적 사상가들이다. 쑨원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는 바로 조지의 사상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조지의 사상에 접한 이후부터 자신의 생애를 조지의 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모두 바쳤다. 톨스토이의 후반기 작품들을 읽어 보면 그가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쏟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의 사상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대만, 싱가포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도시들과 알래스카 주 등이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이 가운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곳도 있지만, 그것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실업, 토지투기, 불황, 도시의 쇠퇴 등 심각한 경제문제들이 사라지는 대신, 경제 성장이 빨라지고 도시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의 토지법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현대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헨리 조지와 쑨원과 톨스토이를 보아라. 그리고 조지의 사상이 적용된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보아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



## 마크 램지어 교수 논문에 관한 간담회

이 간담회는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지어 교수의 한일역사관련 논문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회: 문선주 편집장, 참석: 김성한, 배용하, 염혜정, 한준호)

사회 문선주 편집장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에서 총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아나뱃티스트저널 편집장 문선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안부역사를 왜곡해 논란이 된 논문으로 매스미디어에 연일 기재가 되었던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가 평화와 정의를 말하는 메노나이트 신자라는 사실을 <한국 아나뱃티스트 저널>에 공개적으로 실는 간담회를 여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정의란 사실을 직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 램지어 교수의 논문 관련 이야기를 한국의 아나뱃티스트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화와 정의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전매특허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아나뱃티스트 저널팀에서 겸손하게 돌아보고 배우는 심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와 간담회에 임하는 소감의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한준호: 진해에 있는 주빌리 메노나이트교회 대표 한준호 형제입니다.

램지어교수가 메노나이트 신자라서 놀랐고 너무 의외의 일이라서 심경이

복잡합니다.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염혜정 :** 캐나다에서 <Sowing for Peace> 사역을 하고 있는 염혜정입니다. 처음 뉴스에서 본 후, 여성 신학자 그룹에서 램지어와 관련된 서명 관련 문서를 받았을 때 그의 역사 왜곡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메노나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검색해 보니, <아나뱃티스트 월드>에 선교사였던 아버지 램지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성한 :** 춘천의 예수마음메노나이트교회에 출석중이고, MCC 동북아시아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메노나이트교회 총회(2월 20-21일) 어간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램지어 교수가 메노나이트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 램지어가 제가 공부한 선교학 분야의 선교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어서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개인사라든지, 현재 MCC차원에서 진행 중인 동북아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평화사역과 연관해서 고민의 지점으로 다가옵니다.

**배용하 :** 평화누림 메노나이트의 배용하형제입니다. 저도 램지어교수의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한국 메노나이트교회 총회 때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형제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 형제자매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국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램지어 교수 논문관련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아도 학계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명이나 발견이 아니라 역사의 인식에 대한 문제이므로 세계의 학자들이 잘 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북미에 있는 한국자매형제들과의 대화하는 중에 북미 메노나이트교회 내에서 일본의 목소리가 크고,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침략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국이자 메노나이트와 긴밀한 역사적 관계로 인해 북미 메노나이트들이 일본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내게 되면 이것을 계기로 일본 메노나이트와도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존경받는 선교사인 램지어 교수의 아버가 있었음에도 램지어 교수에게 어떻게 침략자의 역사사관이 그대로 옮겨 갔는지에 대한 역학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미메노나이트교회에 강력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더와 관련한 성관련 문제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뒤늦게 처리했는데 한국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는 요더의 성추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더 크고 아픈 역사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아시아의 역사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일본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메노나이트들에게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을 이참에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램지어 교수는 왜 일본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건너가 볼까 합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 아시는 대로 나눠 주시지요.

염혜정 : <아나뱃티스트 월드> 에 실린 램지어 아버지의 기사에 보면 로버트 루이스 램지어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30년 정도 일하셨고, 메노나이트 신학교 AMBS (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 에서 1972-1996까지 선교학 교수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1953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한지 얼마 안 되어 메노나이트 선교 위원회 (MMN: Mennonite Mission Network 전신)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히로시마 메노나이트 교회를 1981년 대에 세웠고 World Friendship Center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원폭피해자 사이에서 평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

다고 합니다. 그의 첫째 아들이 마크 램지어 교수입니다.

북미에서 사는 일본인들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인종차별적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이 전범국 이유로 미국에 사는 일본 이민자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강제 구금당하면서 혹독한 차별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북미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사례를 돌아볼 때, 빠질 수 없는 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미에서 전쟁이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을 원폭과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미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식민 역사를 중심으로 일본을 인식하는 한국인의 인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1984년도 MCC(Mennonite Central Committee)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이런 북미의 학대에 대해 사과하면서 일본단체와 MCC가 상징적으로 만든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한 : 마크 램지어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다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갔고 18살까지 일본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센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고(1976) 미시간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치고(1978) 하버드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1982). 일본에서 성장했고 일본어를 잘하기에 일찍부터 미국 안에서 일본 통으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메노나이트와 관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메노나이트 선교사라는 것보다 지금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보스톤에 있는 메노나이트 회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메노나이트 기관과 관련하여 자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해 온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뿐 아니라 아들 램지어도 메노나이트와의 연결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 자녀로서 일본에서의 경험과 관계들이 그의 성장에 중

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메노나이트 입장에서 램지어 가족은 은인입니다. 그리고 램지어 가족은 여전히 미국 메노나이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의 영역에서 시작된 이 문제를 교회가 다루기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사회 : 이번에는 램지어 교수 논문의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왜곡이 단순히 학문적인 결함으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및 국제사회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염혜정 : 저는 논문의 전문을 다 읽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한 내용 중의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증언한 부분과 유엔보고를 통해 그들의 일제치하에서의 경험이 구조적인 성착취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도 이미 정리가 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이후에도 계속되어 각 나라의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범죄이고 성착취라는 경험이 이미 다각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부분을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왜곡뿐 아니라 이것을 정당화함으로써, 현재의 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성학대나 성차별, 아동성폭력에도 영향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분이 공창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정당화 하는데, 이것이 여성 몸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시켰다는 것이고, 어린 나이의 여성들이 전쟁 상황에서 식민지화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다고 말하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과 폭력을 무시하고

단순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일본인 소녀를 등장시켜 조선 여성의 계약마저 자발적,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 주장은 그 분이 사용한 예시가 선택적으로 상황을 꼬집어 낸 이야기였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준거와 성실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성한 : 램지어 교수가 지난 1월 <제팬 포워드>라는 아주 보수적인 잡지에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다시 밝히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이슈가 된 논문은 오히려 이 기고문에 비하면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들이 민간업자를 통해서 자유로운 계약했다는 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론에 따라 개인적 이익이 발생하기에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한 점입니다. <제팬 포워드>의 결론은 한국 위안부는 순수한 소설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램지어가 일관되게 91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우리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램지어는 다른 아티클에서 부라쿠민, 재일 코리안, 오키나와 사람들과 같은 일본 사회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폭력을 가하는 시스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법학자로서 이론을 설명하는 사례로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뻔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지점에서 들여다 볼수록, 램지어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용하 :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미 램지어의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올려 놓은 것이 온라인에 다 있습니다. 핵심만 보면 램지어교수의 논문에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것과 10세의 여자아이가 계약서를 쓰고 매춘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나중에 직접 계약서를 봤냐는 질문 앞에서 그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학술논문에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논문에 기재한 것이죠. 혹 그 계약서가 있다할지라도 미성년에게 그런 계약을

하게 했다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 이미 큰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팬포워드>에서 램지어가 일본의 강제징용의 노동자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으니 그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제대로 돈도 주지 않고 착취했는지는 이미 밝혀진 것이며, 한참 후에야 여러 재판을 통해 보상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정부도 인정했는데, 2019년 보수 잡지인 <재팬포워드>에서 램지어가 또 저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 실제 역사가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것과 다르며, 그 역사인식이 침략자의 사관인데 메노나이트라는 화해와 평화의 교파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 이해를 하는 괴물이 나왔는지 감을 잡을 수 없네요.

김성한 : 이미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역사학, 법학과 같은 학문의 공간에서 램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노나이트에게 램지어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메노나이트도 나쁜 짓할 수 있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마다 우리가 다 대응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편집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배용하 : 솔직하게 말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미메노나이트 안에서조차 아시아에 대한 이해에서 원폭 피해자로서의 일본의 목소리만이 인식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해 듣는 순간 속상했습니다. 북미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다른 국적의 아시안분들이 피해자인데도 경제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외로 북미 메노나이트 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대한 평화이해는 있지만, 아시아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거나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을 전쟁의 피해국으로 알고 있다는 부분이 속상합니다. 같은 패전국 독일은 배상하고 모든 것을 몰수당했는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

런 것의 대부분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라  
략에 가장 호응하는 우방국으로 길들여 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메노나이트  
교회의 제자들에게는 일본인에 의해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  
고 싶었습니다.

김성한 :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할아버지도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기에 나  
름 투철한(?) 민족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쑤  
은, 미국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여지는 동아시아의 현대사가 왜 이 모양인지  
에 주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부분은 여전히 필요하지  
만, 왜 미국에서 일본의 목소리는 저렇게 큰데 한국의 소리는 안 들리는가  
에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적으로 북미의 시선을 바로잡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질문을 바꿔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  
까? 동아시아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복잡한 이런 역사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  
면 좋을까를 우리가 더 지향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야  
기야말로 북미중심의 화해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신선하게 '다른 진실과 화해  
의 이야기'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일차적으로 저도 화가 납니다. 저도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매체인 <아나뱃티스트 월드리뷰>에 램지어와 관련된 글을 썼는  
데 답이 없었어요. 전 세계가 램지어의 논문으로 인해 뒤집어졌는데 정작 메  
노나이트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동북아시아의 메노나이트들의 이야기는 “아나뱃티스트 세계”의 일부인가?  
아시아의 목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는 공간에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다  
고 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미국이라는 렌즈보다 지금 이곳에서 당사자  
들이 기존의 일방적인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나갈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배용하 : 우리도 교회에서 이 사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베트남



의 메노나이트 교회에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김성한 형제가 말한 것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궁극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한준호 : 램지어 교수 한 사람의 잘못된 반응이 목표가 아니라, 이번 계기로 북미 메노나이트 안에서 새로운 역사인식에 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메노나이트 연대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와 평화라는 부분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램지어 교수 한 사람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좋은 정보를 미국 메노나이트에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제2, 제3의 램지어가 나올 수 있기에 평화의 개념을 주체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라기보다는 우리는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며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 먼저 우리 저널팀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함으로 김성한형제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왜곡하여 큰 상처를 준 램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한국 메노나이트에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더의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크게 한국 메노나이트에 미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평화와 정의를 말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평화의 정의의 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사실을 직면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드러내고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평화가 발걸음을 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수로 드러날 수도 있고,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 시도 자체

가 의미 있는 대화이자 평화의 여정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염혜정 : 평화에 대한 이해를 북미의 시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메노나이트의 평화에 대한 이해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평화담론이 처음부터 유럽 상황에서 발전해 왔고, 북미 상황에서 반전, 양심적 병역 거부에 참여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북미 메노나이트 신학에서 평화라는 개념이 전쟁, 반전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더의 성폭력, 선주민에 대한 식민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병역거부를 하고 북미로 이주했지만, 결국은 선주민을 몰아낸 땅을 차지하면서 식민적 억압에 연루되면서 땅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이주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식민화, 성폭력, 전쟁 등 여러가지 교차하는 다각적인 폭력의 이해가 필요하고, 한국 메노나이트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메노나이트의 평화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와 베트남 사이에서 해소해야 할 부분에까지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메노나이트의 평화에 대한 이해를 고정시키지 않고 계속 우리의 상황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김성한 형제님이 <아나뱃티스트 월드 리뷰>에 투고하신 글을 읽었는데 한국에 있는 형제의 개인적 이야기를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담론이 아닌, 우리 자매형제들이 겪고 고통받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한 형제님의 개인적 이야기를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AMBS에 있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써포트하겠습니다.

고 말했고, 그들이 잘 모르니까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회 : 김성한 형제님이 제기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한 : 누군가를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유대인에게 홀로코스트가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일본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한 부정이나 왜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북미의 메노나이트라는 이야기 상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북미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또 다른 제국주의(colonialism)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메노나이트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야 하는가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혜정 : 두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미의 상황을 언급한 이유는 램지어 교수가 보스턴 교회에 있고, 이 문제가 촉발되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메노나이트의 평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메노나이트의 원폭에 대한 일본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그렇게 납작하게 단편적으로만 이해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마크 램지어가 평화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펀드를 받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펀드를 받으면 그 연구를 해야 해요. 생계를 위협받으면서도 미쓰비씨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펀드를 받으면서 연구를 한 것이죠. 저는 충돌

지점이 역사와 평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르다는 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한 : 공감이 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소수자에 대해 매정한 램지어의 입장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백인남성중심의 평화신학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탈역사적인가' 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망설여집니다.

염혜정 :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해요. 성명서를 낼 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이 이랬어' 라는 표현보다는 I-message 로 '우리가 이렇게 느꼈어.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는 단편적이지 않고, 또한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닌 우리 자매형제의 가족이 겪은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상황에서 일본과 베트남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배용하 :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가면 좋은데, 저의 역할 혹은 오기와 같은 것은 램지어 교수와 관련되어서는 학자들도 이미 다 밝혀낸, 이런 거짓말논문에 대해 우리가 왜 지적하지 못할까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매형제로서 푸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만약 일본교회와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제되지 않아서는 세대가 지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왜곡했고, 이런 부분은 인정했다 등 팩트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북미의 사람들도 눈물 흘리며 힘들어 하는 사람 위로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위로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순간이잖아요. 그렇기에 종교와 무관한 1,500명 학자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드러낸 게 공동의견을 낸 것이 가장 유의미한 팩트입니다.

사회 : 오늘 간담회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여러 맥락 속에서 발견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려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김성한 : 램지어 교수의 이야기와 한국의 뉴라이트의 주장이 같은 이야기고 또한 이런 이야기들이 보수 우익화 된 일본 사회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며, 이런 복잡한 사정을 잘 모르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앙이라는 맥락에서도, 배용하형제님 말씀처럼 두리몽실하게 화해하고 가는 것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듣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서사를 공유하게 되었을 때, 새로이 형성되는 '우리'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이슈가 휘발성이 강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 안에서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를 우리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매년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기독교인 화해포럼에서는 2015년 나가사키에서 열렸던 화해포럼 이야기가 자주 회자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서 온 참가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았고 분위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례의 시간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성당을 거쳐서 한 일본 목사님이 만드신 작은 사설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박물관은 일본이 원폭의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어떻게 가해자로서 주

변 국가를 침략하고 약탈했는지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박물관에서 국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통스러운 역사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은 또 어떻게 고통 받았는지를 알게 되며 새로운 '우리'의 경험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탈 진실'(post-truth)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램지어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졌다고 봅니다.

한준호 : 전쟁은 기득권자들에 의해 발생되고 진행되고 희생은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일반인들이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램지어교수도 일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YM을 통해서 오사카에 갔을 때에,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의 범죄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다 보고 나서 불을 켜고 선교사님은 일본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울면서 회개할 것을 기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야, 아무 생각 없어? 뭐라고 말 좀 해봐!” 하면서 툭 쳤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뒤로 막 물러나면서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뒤로 가면서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늘 들으면서 알았는데, 정작 일본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역사적 교육이 중요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미 메노나이트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다 생각했어요. 올바른 대화와 올바른 해결은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깐요.

진해벚꽃 축제때 마다 제가 민망한 것이 뭐냐하면, 해병대 분들이 진해에

서 가장 큰 로터리에 베트남 참전 용사 사진을 전시해요. 저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행한 행적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것이 자신의 공적이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고 순수하게 전시하죠. 아주 자랑스러워 해요.

그 앞에 가서 제가 베트남에 대한 죄상을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우리도 아이들에게 베트남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미 메노나이트에게 유대인이 홀로코스트가 거짓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기에 그런 것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동아시아 간의 대화를 할 때는 기득권의 입장이 아닌, 모두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도 전쟁이 수단화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넓혀 가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용하 :** 좁게 보면 메노나이트교회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부담은 한국교회전체나 한국인들에 대한 부담이 어깨에 있긴 해요. 이는 신앙의 문제라기 보다 역사인식의 문제에 가까우니까요.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싶고 최종목적은 일본과 대화하는 것이고 여기서 시작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들가고 싶습니다.

**염혜정 :** 좋은 말씀에 동의하고 배용하 형제님이 팩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한국 메노나이트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김성한 형제님의 글처럼 형제자매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 메노나이트들의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것이 전체 메노나이트들에게도 함당한 이야기가 되면 저희 안

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메노나이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메노나이트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안에서 일어난 일하기에 그 안에서 풀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용하 : MCSK(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차원에서 북미의 대표기관과 단체에 이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체들에서 보낸 답변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메노나이트교회는 램지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가 메노나이트 교회나 신학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램지어가 속한 회중교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한일간의 역사에 대한 여러 자료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들 역시 처음 대하는 이슈이어서 같이 공부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램지어가 속한 교회에서만이라도 공론화되어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과정이 마무리되면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할머니들을 위한 애가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연구훈련원(KOPI)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_ 김학순

이 글은 나눔의 집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들어가면 처음 접하는 문장이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나눔의 집은 몇 분의 “위안부 여성”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이고,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에 자신이 한국의 중군위안부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밝힌 분이다.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1910-1945) 17세의 나이로 일본 군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중국의 최전선으로 보내져 위안부로 고초를 겪으신 분이다.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고 살다가 1990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시스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증언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도쿄 지방법원에 증언하기 위해 1994년 도쿄를 방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용기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이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1997년 한 많은 생을 마감하셨다.

"일본군 중군 위안부"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제국주의 군인들의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받았던 소녀들과 여성들이다. 이 비인간적인 제도에 의해 희생된 여성의 정확한 숫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략 5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여성은 주로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인이 점령한 지역 출신이었지만, 과거 남아시아 식민지에 살았던 유럽 여성들도 있었다. 일본이 중군 위안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전선의 승리로 점령지역에서 일본군들에 의한 민간인 강간이 폭증하면서 반일 감정이 늘어나자 이를 줄이려는 계략에서 "위안소"를 만들었다.

첫 번째 "위안소"는 1930년대 초 상하이에 세워졌다. 그 이후 전쟁이 지속되고 더 심각해짐에 따라 위안소의 숫자도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특히 1937년 난징 대학살 사건 이후, 일본군과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위안부"의 체계적인 징집에 관여하였고 위안소의 숫자는 1943년까지 약 400개로 증가했다. 결국 "위안부 시스템은" 미국의 1945년 원폭투하로 일본이 패망한 후 종말을 고했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여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일부는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했고, 일부는 자살로, 또 다른 일부는 수치심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나눔의 집은 우리 피스빌딩 공동체에서 멀지 않아 외국 방문객을 모시고 방문하는 주요장소 중의 한 곳이다. 가깝기도 하지만 주로 평화와 정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미와 아시아의 메노나이트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자주 찾게 되었다. 누구든 위안부 생존자이신 할머니들을 만나는 경험은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많은 방문들 중에 잊지 못할 두 번의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 있다.

한 번은 여고생 몇 명을 포함한 일본인 방문객들과 함께 나눔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짧은 영상을 관람한 후, 방문자들은 할



〈일본에서 온 학생들과 이옥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머니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인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에서 온 소녀들에게 나이를 물었고, 이들은 16살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내가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갔을 때 나이가 정확히 16살이었다. 그 때 그놈들이 같이 가면 공장에서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따라갔다가 험한 꼴 당한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의 운명을 모른채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중국의 한 "위안소"로 끌려가 성 노예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통 받았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2년 동안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을 상대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버려져 2000년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귀국할 때까지 55년간 중국에서 홀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믿지 어려울 정도였다.

이옥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한 여자 그리고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고통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누구도 쉽게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16살짜리 학생의 손을 잡고 담담하게 말했다. "울지 마라!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의 과거 죄악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발적인 매춘부였고 자신들의 범죄의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왜 없는가?"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세계우호센터에서 온  
원폭 생존자 모리시타 히로무 씨〉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고, 내 삶이 바로 증거다. 우리가 일본 정부에 사죄를 외치는 이유도 일본 국민들을 과거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야기했다. 그 날 일본에서 온 모든 사람들 특히 소녀들은 잇을 수 없는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다.



또 한 번은 히로시마에 있는 World Freidnshp Center(WFC)에서 온 손님들과 함께 할머니들을 찾아뵈었는데, 그 중에는 원폭 생존자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기 나라는 다르지만 일본과 한국의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다.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대화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냥 눈물만 함께 흘릴 뿐이었다. 비록 원폭 생존자나 할머니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서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가 어떤 종류의 고통, 수치심, 차별을 겪었는지 이해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나중에 원폭 생존자 중 한 분인 히로무 모리시타씨는 “처음으로 위안부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피해자로서 원자탄의 공포를 증언하기 위해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오늘만큼은 가해국 일본인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할머니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나에게 해 주었던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나의 이야기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희생자의 만남은 천국에서 벌어질 신성한 화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제 이옥선 할머니나 히로무 모리시타 상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온몸으로 자신의 삶의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정의를 향한 용기에 대해 커다란 교훈을 주고 계신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는 전쟁 영웅이 아닌 희생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동료 인간사이의 대규모 파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sup>1</sup>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 줄 ‘위안부 생존자, 원폭 생존자, 난징 대학살 생존자’들을 초청해 왔다. 이 생존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의 주제어는 “Never Again!”이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넘어 자신들이 전쟁과 같은 구조적 폭력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기원했다.

올해 초 하버드대학의 한 교수가 쓴 “위안부”에 대한 논문이 한국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나는 그 기사들을 보고 몹시 실망하게 되었다. 그 교수는 갑자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로 부터 부정적 관심과 심지어 증오까지 한 몸에 받게 되었다. 나는 이 몰지각한 소식을 접하게 될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들은 일본 우익 단체로부터 여전히 ‘자발적 매춘부’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오랫동안 이 부당한 주장에 맞서 싸워왔다. 할머니들에게 있어 “강제적”과 “자발적”이란 단어는 그들의 진실성과 존엄성의 회복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가

---

1.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ortheast Asia Regional Pecebuilding Institute)는 미국의 Eastern Mennonite University에 있는 Summer Pecebuilding Institute(SPI)에 영감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 만들어진 평화교육훈련 프로젝트이다. 참고 [www.narpi.net](http://www.narpi.net)

지고 있다. 사실 일본 우익 단체들이 해온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실왜곡은 그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 일류 대학의 교수가 그들의 주장을 공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지니게 된다.

나는 처음에는 그 교수가 동북아 역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크 램지어 교수가 메노나이트 출신으로 일본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란 사실을 알고 몹시 당황하게 되었다. 그의 부모는 히로시마에 메노나이트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자매단체인 히로시마 WFC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분들이었다. 그의 배경에 대해 들을수록 나는 혼란스럽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한 때 국가주의에 빠져 해병대를 자원입대했던 나는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비폭력과 기독교 평화주의의 중요성을 메노나이트로부터 배우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메노나이트의 믿음과 실천을 목격한 후에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을 소명으로 알고 단체와 함께 일 해왔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형제자매 간의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히로시마 WFC 손님들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왔던 것이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나에게 평화와 정의 사역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준 메노나이트와 그의 행동 사이에서 오는 심각한 인지부조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나의 좌절과 당혹감이 램지어 교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메노나이트와의 인연과 할머니들에게 굴욕감을 주며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의 적이 된 램지어 교수가 메노나이트 출신인 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에 기인한 것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한편으로 그의 의도는 알 길이 없지만, 왜곡되고 편협한 자료와 정보 속에서 경

도된 신념으로 전 세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을 램지어 교수에 대해 안타까움 마음도 든다. 나는 그에게 연결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작은 제스처가 있다. 마치 우리가 다른 메노나이트 형제자매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와 나눔의 집에 같이 방문하여 할머니들과 잠시라도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짧은 방문이 램지어 교수가 부정적인 의도 없이 자신이 야기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는 나의 직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진리는 오히려 ‘믿을 때까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데윳 존스(Dewitt Jones)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이재영 형제: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의 평화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했으며  
이후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한국평화연구훈련원(KOPI),  
한국회복적정의협회(KARJ) 등을 설립했다.

## “예수가 전한 평화의 복음: 길, 진리, 생명”

### Intro

지난 일 년 동안 나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제는 “납작한 복음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다녔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평화의 복음”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평화의 복음에 대한 내 주장은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복음은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는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같은 여덟 글자로 쉽게 요약되는 납작한 복음을 외치며 그 복음에 길들여져 온 교회는 정작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복음으로”를 열심히 외쳐봤지만 돌아가야 할 복음이 납작한 복음이라면 결론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성한대표  
MCC 동북아시아지부

### 1.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납작한 복음이라고 하는가?

예배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며, 그 노래들이 거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강화하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사실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다. 납작한 복음의 한 예로 '사영리(四靈理)'와 같은 복음 이해와 전도 방식을 생각해 보자. “예수천국 불신지옥”보다는 훨씬 나아보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의 진리, 혹은 복음은 사영리와 같이 몇 개의 문장 혹은 명제로 정리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영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



용되었다. 문제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원죄, 예수의 십자가 대속,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네 가지 핵심으로 제시하는 사영리가 마치 복음의 정수-핵심 요약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영리는 1960년대 중반, 격동하고 있던 미국의 청년 대학생들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수단이었다.<sup>1</sup> 그러나, 그것은 전 세계, 미국 발 복음주의 확산과 함께 특별히 한국에서는 복음의 표준적인 표현으로 수용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나의 표준으로 결정되면 그 표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영리는 또한 복음의 제시와 전달 방식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이어야 한다.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되거나, 삶을 통해 제시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한다 (벧전 3:15). 어떤 의미에서 사영리는 복음을 쉽고 단순하게 요약 제시하는 것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무게와 그것이 가져 올 새로운 실재를 반영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sup>2</sup>

## 2. 평화는 어떻게 낯선 이야기가 되었을까?

그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아주 오래된 일 것 같지만, 2018년 4

- 1) “네 가지 영적인 법칙”(Four Spiritual Laws)이라는 이름이 사용 된 이유는 원래 과학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어쩌면 지금보다는 1960년대 초반에 강조되었던)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학의 법칙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빌은 그들이 또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법칙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Richard Quebedeaux, *I Found It! – The Story of Bill Bright and Campus Crusad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79), 97.
- 2)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환점은 1956년 여름 UCLA 캠퍼스 근처에서 열렸던 간사들의 사역회의에서 찾아왔다. 빌은 유명한 세일즈 컨설턴트를 초대해서 모인 간사들에게 명료하게 정리 된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경험으로부터 말하게 했다. 더 기본적인 것 일수록 메시지는 더 명료하게 기술 되고, 더 잘 소통되고, 사람들의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Michael Richardson, *Amazing Faith – The Authorized Biography of Bill Bright* (Colorado Springs: Water Brook Press, 2000), 71.

월 27일이었다.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은 만나기로 했다. 또 다른 전쟁의 소문이 커져가던 2017년을 기억한다면, 이날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큰 안도를 느끼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 판문점으로 쏠려 있던 그 시간에 타임지 인터넷 판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소개되었다. 기사 제목은 “왜 남한의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였다.<sup>3</sup>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살롬의 통치를 이야기했다. 예수도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비폭력의 모범을 보이셨다. 베드로와 바울도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자들도 그렇게 살았다.<sup>4</sup> 그런데 평화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낯선 이야기가 된 것일까?

## 2-1. 콘스탄티누스 전환/크리스텐덤의 등장

먼저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옮겨 볼 수 있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의 등장과 ‘콘스탄티누스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변화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낯설게 되어버린 첫 번째 이유라 할 것이다.

1세기 그리스도교는 소수자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갔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 전역에서 비정기적으로 크고 작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종교사

---

3) Kelly Kasluis & Kevin Grant, April 26, 2018. “Why South Korea’s Conservative Christians Don’t Want to Get Cozier With the North” (<https://time.com/5255850/why-south-koreas-conservative-christians-dont-want-to-get-cozier-with-the-north/>)

4) 예수의 평화를 말한 선지자들(이사야9:6-7; 누가1:79; 누가2:14), 평화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예수(누가4:18; 마가5:34; 누가7:50), 예수가 가르친 평화, 사랑,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길(마태 5:38-48; 누가23:36), 구원과 평화를 완수한 십자가(로마5:1; 로마5:10; 에베소2:17-20; 로마12:18; 1 테살로니가5:15), 사도들은 예수에 대한 헌신은 그의 평화의 길에 대한 헌신이라 이해했다(히브리 12:14; 1베드로 3:11, 1베드로 3:9; 야고보 3:19). 에스터 엠타이센/김성한 옮김 『평화를 추구하라』 (춘천: MCC, 2020), 13-15.

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 (Rodney Stark)는 그의 기념비적인 책 『기독교의 발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10년마다 40%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sup>5</sup> 이 성장률을 적용하면 AD 300년 로마제국의 전체인구를 대략 6,000만 명이라고 보았을 때 그중의 10%인 600만 명이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셈이다. 더 흥미로운 변화는 300년에서 350년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다. 스타크는 AD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제국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로마제국의 서북쪽을 다스리던 콘스탄티누스 (AD 272-337)가 서로마제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크리스텐덤의 기초가 놓였다.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중 하나로 공인하였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교는 변방의 핍박받는 종교, 소수자의 종교에서 그리스도교인 황제의 인정과 지원을 받는 종교가 되었고, 훗날에는 드디어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다. 불과 50년 사이에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는 콘스탄티누스 없이는 설명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변화는 평화의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박해받던 교회,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던 이들이 이제 겨우 음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둘러싼 상황과 사회의 극적인 변화는 교회의 제도와 실천에 영향을 끼쳤다. 교회의 가르침의 내용과 강조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sup>6</sup>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교회에서 신자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삶을 돌

---

5) 로드니 스타크/손현선 옮김,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6) 종교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스타크는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 전염병, 화재, 기근과 같은 사회적 재앙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반응과 공동체의 결속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한다.

6) 알렌 크라이더/허현 옮김,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논산: 대장간, 2019)와 알렌 크라이더/박삼중, 신광은, 이성하, 전남식 옮김, 『회심의 변질』 (논산: 대장간, 2012) 그리고 로버트 뱅크스/신현기 옮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서울: IVP, 2017),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서울: IVP, 2018),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서울: IVP, 2020) 은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전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키고 바른 삶을 배우며(Orthopraxy), 바른 믿음의 내용을 배우고 고백(Orthodoxy) 할 수 있어야 했다. 이 모든 교회 교육 과정(Catechism)은 수년에 걸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해를 받고, 손해를 입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가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인과 신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한 바른 삶의 방식과 바른 신앙고백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의 이야기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되었다. 살롬의 비전도, 평화의 복음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더군다나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된 이상 교회는 제국 경영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에른스트 다스만(Ernst Dassmann)은 콘스탄티누스 전환에 대한 비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한다 - (1)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한 진심, 그의 정통 신앙, 개인적·도덕적 태도는 의심스럽다 (2)교회는 권력의 유혹으로 타락했다 (3)신약성경 규범들을 잃으면서 교회는 이교인의 종교성을 받아들였다. 폭력을 수반한 선교는 내적 개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개심과 개혁을 낳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원시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활기는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적 윤리에 눌러 위축되었다 (4) ‘콘스탄티누스 전환’은 1,500년 이상 교회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운명적이었다.<sup>7</sup>

다음의 표는 간략하게 콘스탄티누스 전환이 가져온 그리스도교 신학과 윤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전환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여겼을 “신약성경의 규범들을 잃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콘스탄티누스의 전환 속에서 산상수훈을 따라 살라는 예수의 급진적인 초청은 크리스텐덤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바른 삶의 방식이 아

---

7) 에른스트 다스만/하성수 옮김 『교회사Ⅱ/1』(왜관: 분도출판사, 2013), 29.

신학/윤리적인 변화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전의 교회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후의 교회
성경중심, 문자주의, 율법주의	사회적 상식과 자연법
윤리적 방법론: 성경의 명령에 따름, 예수의 가르침	윤리적 방법론: 목적론적 성향, 이성
“기독교 윤리를 기독교인을 위해 존재”	“기독교 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제국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
순교의 신학, 하나님은 무고한 고통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심	승리의 신학,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평화주의(Pacifism)가 전쟁에 대한 주된 입장	정당전쟁론(Just War), 성전(Holy War)이 전쟁에 대한 주된 입장

나라, 수도자들과 사제들과 같이 구별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허용되는 것으로 전환된다. 달리 말하면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었던 ‘하나의 윤리’ (Single Ethic)가 있었다면 이제 이 윤리는 교회 안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이른바 ‘평신도’ 들에게는 그보다 낮은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살게 되었다. 교회 스스로 ‘이중잣대’ 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로마제국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국의 권세와 질서가 교회의 복음과 실천을 뒤집어 놓았다. 이 상호침투와 변화의 과정은 이후로도 제도화된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고 복음화 시킨다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다.

## 2-2. 크리스텐덤 너머

콘스탄티누스 전환이 가톨릭 교회사가의 저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놀랍고 반가운 일이다. 다스만은 콘스탄티누스 전환이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한다.

‘콘스탄티누스 전환’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였음을 암시할 뿐 아니라 격렬한 토론의 대상이며 동시에 많은 의문을 낳았다. 곧, 교회가, 처음에는 평화를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장려하겠다는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가? 교회가 국가의 도움으로 권력과 명성을 얻는 대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 정치신학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교회의 정치 참여 등에 관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콘스탄티누스 전환’과 그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시기에, ‘콘스탄티누스 전환’의 영향은, 교회와 권력의 1,500년 이상 맺어 온 불행한 제휴를 마침내 끝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 교회 안팎에서 격렬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다스만 24)

1962년 10월에 시작되어 모두 네 번의 회기를 거치면서 1965년 12월에 폐회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스만의 평가와 같이 크리스텐덤과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다루었기에 가톨릭교회를 넘어 그리스도교 신앙과 실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sup>8</sup>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훨씬 이전인 16세기에 이미 크리스텐덤이 만들어낸 문제들에 대한 진지하고도 급진적인 질문과 실천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어쩌면 아나뱃티스트가 물었던 질문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 수 있다.

“루터는 편집되어 버렸고, 그 자리에 칼뱅이 등 떠밀려 왕 노릇한 지 오래”인 한국교회<sup>9</sup>에서 크리스텐덤 이야기는 아나뱃티스트들의 저작보다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 번역할 수 있는 미션얼 처치(Missional Church)의 이론가와 실천가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9년 번역 소개되어 이후의 미션얼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마이클 프로스

---

8) 최종원 『공의회 역사를 걷다-사회사로 읽는 공의회』 (서울: 비아토르, 2020), 제13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아조르나멘토,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공동선”을 참고하라.

9) 최주훈 『루터의 재발견』 (서울: 복 있는 사람, 2017), 12.

트와 앨런 허쉬가 쓴 『새로운 교회가 온다』가 그 좋은 예다. 거의 1,700년 동안 굳건히 존재해왔던 크리스텐덤의 붕괴와 함께 “탈/후기 기독교사회”(Post-Christendom)에서 새로운 교회의 길을 모색하는 이들이 크리스텐덤 이전의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sup>10</sup>

한국 개신교의 놀라운 급성장을 목격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급격한 쇠락을 보게 되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등장한 ‘가나안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올곧이 다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가나안성도를 한국적 상황에서 “탈/후기 기독교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관찰은 지금 우리의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반공, 친미, 자본주의, 근대화로 요약되는 한국기독교의 타당성 구조가 흔들리면서 교회에 대한 호의와 신뢰도 와해되기 시작한다. 대신, 오늘날의 주요 이슈들인 다양성, 소수자, 개인존중, 공정사회, 평화와 통일, 페미니즘 등에 대해서 기독교는 극히 수세적이며 병리적인 역대응을 하고 있다.<sup>11</sup>

김선일은 한국기독교의 성장의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여겨지는 반공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것들을 사회학의 개념인 ‘타당성의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로 가져온다. 핵심은 기독교 신앙이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작동

---

10) “크리스텐덤은 본질상 그 처한 상황과 관련한 입장이며 작동하는 유형이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선교에 대한 크리스텐덤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나아가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매우 고정된 개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교회란 대개 (특정하게 설계된) 건물과 목사와 연관된다. 그 선교적 양식을 보냄이나 성육신이 아니라 주로 끌어 모으는 방식이다. 교회가 문화에서 일종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건물(대개 중세적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의 위치도 그 중심성을 상징한다. 리더십은 주로 제사장 형태로 묘사되고 간혹 내부인들에게는 예언적이지만 외부인들에게는 별로 예언적이지 않고(‘바깥에 있는’ 이들은 듣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사도적이지도 않다. 크리스텐덤은 기독교를 유지관리 형식(a maintenance mode)으로 바꾸어 버렸다.”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지성근 옮김 『새로운 교회가 온다』(서울: IVP, 2009), 35.

11) 김선일 “탈교회 시대의 교회: de-churched인가, post-churched인가?” 『탈교회-탈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논산: 느헤미야, 2020)

하던 타당성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교회에 견디며 남아 있을 수가 없거나’, ‘교회 바깥으로 추방당한 이들’은 16세기 아나뱃티스트와 같은 제도교회 바깥을 선택한 비주류, 소수종파가 품었던 질문과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지금 교회를 떠난 이들이 사라지게 될지, 다른 어디로 향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초유의 사태’에서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소종파 운동을 참고하라는 같은 책의 배덕만의 글은 고려해 볼만한 권고사항이다.<sup>12</sup>

물론 문제는 조금이라도 나와 다르면 ‘이단’을 만들어 왔던 그 ‘정통’에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 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나의 소박한 바람은 지나간 세대의 타당성 구조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맞이고 있는 문제와 도전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자기의 언어로 기독교 신앙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구성을 위한 언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평화의 이야기가 담겨있기를 바란다. 평화의 복음이야말로 크리스텐덤으로 시작 된 납작한 복음이 놓쳐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 2-3. BTS시대의 BTJ

프로스트와 허쉬는 “기독교론(Christology)이 선교학(Missiology)을 결정하고 이어서 선교학이 교회론(Ecclesiology)을 결정한다”는 빛나는 문장을 남겼다.<sup>13</sup> 그러나 이 당연해 보이는 순서는 놀랍게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른 순서로 진술되고 실천되었다. 가장 비극적인 역전 현상을 찾는다면 십자군 전쟁과 기독교 제국의 식민지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략 AD 1095-1289까지 총 9회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고 알려진다. 또한 콜럼버스의 (이른바-) “신세계 발견”과 그에 따른 유럽인(그리스도인)의 정복과 지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했던 ‘발견의 교리’ (Doctrine of Discovery)는

12) 배덕만 “교회론적 관점에서 본 소종파 운동” 『탈교회-탈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 (논산: 느헤미야, 2020)

13)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지성근 옮김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09), 371.



여러 교황들의 칙서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기독교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옹호하는 공식 이념이 된다.”<sup>14</sup>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신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십자군 전쟁에서 보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습은 ‘원수까지 사랑’ 하라는 예수가 전한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이야기하면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수탈했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웃을 사랑’ 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듯 제국과 교회가 구별 되지 않는 크리스텐덤 상황에서 국가교회의 교회론은 그에 합당한 선교학을 결정했고 그 선교학은 3M이라 불리는 선교사 (Missionary), 무역상 (Merchant), 군대 (Military)의 모습으로 실현되었다. 지배와 폭력을 통해 소개되는 예수의 복음이 어떤 기독교론을 제시하고 있을지는 분명해 보인다. 프로스트와 허쉬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여전히 이 뒤집혀진 순서를 바로 잡는다고 해도 “어떤 기독교론인가?”라는 질문이 남아있다. 이 지점에서 아나뱃티스트가 나눌 수 있는 독특한 기여가 있다.<sup>15</sup>

피터센은 “탈/후기 기독교사회”를 사는 우리가 아나뱃티스트가 취했던 성경해석학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은 그리스도론(Christological)적이었다. 예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시였으며, 그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핵심적 사건이다. 아나뱃티스트는 이를 진심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예수 그 자신에 대해서는 덜 강조하고 그의 구원의 사건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14) 루이스 N. 리베라/이용중 옮김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아메리카는 어떻게 기독교 세계의 희생제물이 되었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73.

15) 김동춘 편집 『탈교회-탈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 (논산: 느헤미야, 2020)에 실린 김선일의 글 “탈교회 시대의 교회: de-churched인가, post-churched인가?”와 지성근의 글 “제도 교회 밖의 교회를 상상하다” 모두 프로스트와 허쉬의 명제를 탈교회 시대의 교회를 위한 논의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떤 기독교론인가?”에 대한 모색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다.

교리를 더 강조한다. 그들의 해석학을 구원론(soteriological)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성서에 대한 해석학의 열쇠를 제공한다. 아나뱃티스트의 해석학은 그리스도중심(Christocentric)으로 예수의 구원 사역을 기술한 교리보다는 예수 그 자신에 집중한다. 예수는 구원자일 뿐 아니라 닮아야 할 모범이요 순종해야 할 선생님이다. 그리스도중심 사상은 인간 예수와 더욱 굳건히 연결 되어있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해석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중심주의는 개혁자들의 교리적인 접근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 예수의 모범에 기초한 값비싼 제자도의 삶을 살라는 요청은 더 급진적인 것이었으며,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개혁자들과 전통적인 가톨릭의 가르침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은 덜 급진적인 것이었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계속해서 참고하는 것은 개혁자들을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역사적인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간 신학의 발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아나뱃티스트의 실천은 예수를 그들의 윤리적 확신과 연결 짓기 힘들어하는 개혁자들이 도달하는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다.<sup>16</sup>

다음의 두 신앙고백서는 물론 16세기 유럽이라는 지금 우리와는 매우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터센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중심’의 해석학이 만들어내는 선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 Schleitheim 신앙고백<sup>1527</sup> – 7 칼의 사용

우리는 칼의 사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일치점을 보았다. 칼은 하나님께서

---

16 ) Lloyd Pietersen, 『Reading the Bible After Christendom』 (Harrisonburg: Herald Press, 2012), 71.

그리스도의 완전성 밖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세속 정부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죽이는데 사용하지만 선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칼은 사악한 무리들을 심판하고 죽일 수 있도록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속 정부들 역시 똑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인하지 말고, 단순히 경고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 것을 말하며 대신 출교시킨다...

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치안 판사가 되는 것에 대한 답변 또한 자명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셨지만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걸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예수님 자신도 칼과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길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 20:26).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셨다...” (롬 8:29)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벧전 2:21)라고 말했다.

## Augsburg 신앙고백서<sup>1530</sup> – 제 16조 공민 생활에 관하여

공민 생활에 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민 생활에 대한 합법적인 규정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업적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공직을

가지고 재판장이 되거나, 국법이나 다른 현행 법령에 따라 사건을 판결하고, 정당한 벌을 주고, 정당한 전쟁에 종사하고, 군인으로 봉사하고,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재판관이 요구할 때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들을 혼인하게 하는 일 등은 모두 다 정당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에게 이러한 공직을 금하는 재세례파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역시 복음의 완성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에 두지 않고 공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데 두는 사람들도 배격합니다. 왜냐 하면 복음이 마음의 영원한 의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국가나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도로써 보존하며, 이런 제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매우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들의 위정자와 법률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물론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 5:29)

그리스도론(Christology)을 가장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프로스트와 허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굳이 아나뱃티스트 성경해석학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결국-) 구원론으로 모든 것을 수렴하거나 환원하는 그리스도론과 성경 해석은 '다시 납작한 복음' 으로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전한 평화의 복음이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작 예수의 삶과 모범을 다 견어내고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성서에 대한 해석학의 열쇠로 여겼기 때문 아니던가?

지난 1년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한국 개신교는 다양한 이유로 뉴스에 등장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전염병이라는 사회적 재앙 가운데서 “고난 너머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재앙이 닦혔을 때 더 훌륭하게 대처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러낸 한

국 개신교회의 모습은 그리 밝지 않다.<sup>17</sup> 그동안 보수 개신교는 다양한 ‘포비아’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역으로 교회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1년 동안 신천지와 구별 짓고 전광훈과 거리를 두었지만 최근에는 BTJ가 뉴스에 연일 등장한다. 이 아픈 뉴스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보여 준다. 예수에서 시작하자.

### 3. 길, 진리, 생명으로서의 평화의 복음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요한복음서 14:5) 라고 선언했다. 구원론 혹은 구원에 대한 교리가 해석학의 열쇠로 여겨질 때, 이 구절은 다종교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증거구절로 자주 사용된다. 예수가 걸었고 우리를 부르는 그 길도, 말과 행동으로 가르쳤던 진리의 풍성함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약속한 생명도 아주 낱작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정말 예수는 타종교를 의식하며 이렇게 말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종종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우상으로 지목했던 것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들이 아니라 재물, 맘몬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태복음서 6:24).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라는 선언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필요한 평화의 복음의 성격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 3-1. 예수는 길이다

지금 급속한 “교회의 붕괴”와 초유의 “탈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얼마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소수종파’의 시선

---

17) 로드니 스타크/손현선 옮김,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2016) 제4장 “역병, 네트워크, 개종”을 보라.

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콘스탄티누스 전환과 천 년 이상 지속되면서 성장 발전해 온 크리스텐덤의 문제들 가운데 교권주의(clericalism)의 폐단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전환으로 실종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공통된 하나의 윤리”를 회복하는 것은 실패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벽을 허물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제사장’ 임을 선언했지만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제자’로 살라는 초청은 희미해져 버렸다. 이후 “네 원수를 사랑하라”와 같은 그리스도교 윤리의 최대치는 구원을 위한 근검절약과 성실한 삶으로 축소되고 자본주의가 변성할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인상적이다.

“내가 길”이라는 예수의 선언을 어떻게 이해할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지시하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예수의 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걸었던 평화의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 3-2. 예수는 진리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하우트바르트는 ‘주인을 배반한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호명했다. 그는 진보와 번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가져온 위기를 경고하며 혁명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물질적 번영, 안보 이데올로기가 우리시대의 우상으로 등극했다고 지적한다. 18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지적과 경고는 여전히 유효

---

18)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과 사회가 그들 자신의 손으로 빚어 놓은 가공품이나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힘(force)을 숭배하고 신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풍요와 구원과 건강과 보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이르든지 느리든지 간에 신들(gods)을 만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들은 결코 자기들을 만든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의존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만들어진 신들이나 세력이 윗자리에 앉는 때가 필연적으로 오고마는 것이다. 그 사물들과 세력들은 자기들을 만든 자들을 배신하는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룩해 낸 진보의 수단 이블레텐 경제, 테크놀로지, 과학, 국

하다. 그 우상들이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이 우상이 된 이데올로기들은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는 교회의 오랜 친구였으며, 국가 안보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를 넘어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 지출과 군사주의를 정당화 했다. 그리고 ‘더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각 개인의 욕망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 번영의 이데올로기의 그 무엇보다 강력한 이 시대의 우상이다.

예수가 진리라는 주장이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이 우상들이 거짓으로 폭로 될 때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워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골로새서2:10,15).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동안 여러 우상들을 호명하고 진리의 빛으로 폭로하기보다 그 우상과 손을 잡았다. “내가 진리”라는 예수의 주장에 반응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들을 비추신다.<sup>19</sup>

---

가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 신으로서 자기들의 의사를 우리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밥 하우즈바르트/김재영 옮김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서울: IVP, 1987), 15. 톰 라이트 역시 우리 시대의 우상을 호명한다. 그에 따르면 전쟁과 폭력의 신 마르스, 재물의 신 맘몬, 성애와 에로티시즘의 여신 아프로디테, 대지의 여신 가이아, 많은 이름을 가진 많은 신, 탐욕의 신 바쿠스, 그리고 지성의 우상이다. 톰 라이트/김소영 옮김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 (서울: IVP, 2016) 11장, 12장, 13장을 참고하라.

19) “평화와 세계적인 안정은 상호 파괴의 두려움이나 완전한 절멸의 위협에 바탕을 두려는 그 어떤 시도와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무기 경쟁은 인간의 온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자연 환경을 보호 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합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의 제조, 업그레이드, 유지, 판매를 통해 쌓은 재산과 낭비되는 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나가사키 메시지 2019년 11월 24일)

### 3-3. 예수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는 많은 역설의 주인공이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약함으로 강해지며, 증오가 아닌 사랑과, 배제가 아닌 환대를 선택하게 된다. 예수가 가져온 (영원한)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물리적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적인 특성에 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선언한 예수는 죽음을 불러오는 모든 폭력과 파괴에 대해 맞서라고 우리를 부른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죽음과 폭력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공존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반응일 것이다. 이는 또한 평화에 대한 관심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결론

세상 그 어느 곳에서보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와 상상이 더 필요하고 활발해야 할 것 같은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정작 평화를 낮설어했다. 이런 한국의 역사와 교회라는 맥락에서 “천연기념물보다 보기 힘든” 수준을 넘어 “희귀종”에 가까운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신앙은 무엇을 나누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20 이것이 지금 내가 씨름하는 질문이다.

---

20) 루터파 목사이자 신학자인 최주훈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출간된 『루터의 재발견』(서울: 복 있는 사람, 2017)에서 “한국에서 루터에 대한 무지 혹은 부정적 평가”의 원인을 “쓸림 현상이 심각한 교파적 상황”에서 찾는다.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을 그대로 이식한 한국의 신학적 토양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는 점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어 가는 교회는 제쳐 두고라도, 기독교 출판사와 학자들의 놀이터인 학회조차 특정 성향의 신학적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는 곧 신학적 편식으로 이어졌다. 루터는 편집되어 버렸고, 그 자리에 칼뱅이 등 떠밀려 왕 노릇한 지 오



첫 번째 재세례가 있었다는 1525년 1월 21일을 기억하며 매년 그 어간에 모이는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와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아주 오래 전, 영국의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한국 자매님 두 분이 교회와 가정을 방문해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브루더호프를 찾는 많은 한국 방문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자매님 한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분들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 평화에 대한 우리의 확신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수가 전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고 헌신했던 평화의 복음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기 바란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를 재구성한다. 예수가 전한 평화의 복음은 칭의와 구원에 따라오는 별책 부록 같은 것이 아니다. 더욱 담대히 평화의 복음을 이야기하자. 교회는 평화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

래다. 그 옆에 웨슬리가 엉겨주춤 서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에 루터교회는 49개, 전체 성도는 최대치로 잡아도 5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루터교회 목사인 내가 어디를 가든 소개하는 말이 생겼다. “당신은 지금 천연기념물보다 보기 힘든 루터파 목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최주훈, 13) 루터파 보다 더 “튼보잡”인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는 천연기념물을 넘어 희귀종으로 봐야할까?

## 모든 이를 위한 목회 매뉴얼

이 연재는 존 렘펠(John Rempel.)의 *Ministor's Manual* 김복기 형제가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모든 이를 위한 목회 매뉴얼』로 출간하였다.

〈심는 순서〉 예배와 예전 • 언어를 넘어선 예배 •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

• **세례와 교회의 멤버십** • 주의 만찬 (성찬식, The Lord's Supper) • 축복 • 부르심과 리더를 세우는 예식 • 애도와 치유 • 회중의 분별

### 세례와 교회의 멤버십(회원권)

#### 성경적인 근거

예배의 행위로서 세례는 성경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결예식은 통상적으로 지은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염원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신약 성경의 이해와 실행을 위한 배경이 되고 있다. 세례 요한은 세례에 아주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세례를 함께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마태복음 3:2,8)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인수하는 것과 더불어 그의 백성이 되는 의미로서 예수께 세례를 주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기독교로 들어가는 상징으로써 세례를 시행해왔다. (사도행전 2: 38, 41) 이것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세례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1.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죽음, 장사지냄, 그리고 부활하심에 동참한다. (로마서 6:1-4)
2. 세례를 통해 믿는 사람은 증거하는 삶을 살며 예수의 몸인 기독교 공동체의 부분이 된다. (고린도전서 12:12, 13)
3. 세례를 통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4. 세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간의 분열을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데, 이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26-29; 에베소서 4:5)
5.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 (골로새서 2:9-15)
6. 세례는 회개 후에 시행되며, 성령의 부으심을 상징한다. (사도행전 2:38)
7. 세례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12:2)
8. 세례는 구원의 근원이 되거나 방법은 아니다. (고린도후서 10:2)

### 신학적인 근거

세례는 신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내면의 변화 및 영적인 변화를 외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메노나이트 신앙고백』 제 11조에 따르면 세례는 믿는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상징적 예식이다. 세례를 받는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비록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정과 세례를 받는 것이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과 세례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성장하고, 서로 돕고, 제

자가 되며, 사명을 다하는 개인의 생활 신앙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현장 속에서 표현된다. 세례와 교회의 회원권은 분리될 수 없다. 세례는 믿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모인 공동체(교회)에 속하게 하며 믿음과 생활의 모든 문제를 서로 책임지도록 한다.

유아들과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완전히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유아들과 어린이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나뱃티스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심판으로부터 죄와 상관없는 어린이들을 지켜준다고 말한다. 아이의 동료들과 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세례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대에는 세례를 받도록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을 제대로 못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세례는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은혜와 용서(어떤 경우에는 위기의 사건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함)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하고 회중에 헌신하도록 요청한다.

세례를 받는 후보자에게 세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은혜의 경험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당신께 복종케 하신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하나님 및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다. 세례는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있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다. 그러나 세례가 사람들을 믿음의 성숙에 이르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사랑의 삶 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조언을 주고받으므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두신다. 믿음의 복종은 개인과 공동이 드리는 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등을 통해 인

생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 역사적 근거

초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성숙한 헌신을 보인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였다. 자신들의 결정이 자신 삶 속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신자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도 좋다고 제안하는 것으로써 전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할 만한 한 두 군데의 성령구절들이 있기는 하지만(사도행전 16:33), 세례에 대한 신약성경 전체의 증거는 죄를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성숙한 헌신의 결과였다.

초기 아나뱃티스트의 세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물세례는 성령 세례와 이로 인한 내면의 깨끗함을 외부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2. 성령 세례는 신자의 매일 생활을 능력 있게 해준다.
3. 피 세례는 그리스도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며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겠다는 표현이다.

1527년에 작성된 『슐라이타임 고백서 *The Schleitem Confession*』는 세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세례는 회개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고치기로 하며, 자신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음을 받았다고 진실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같이 자신도 죽고 다시 부활하고자 희망하는, 그리하여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다.”

## 실제로 고려해야 할 내용들

비록 세례의 실행이 교회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특징을 갖고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수반함으로 세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 지도자로서 인정받거나 회중의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 의해 집행되어야 함
-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세례여야 함.
-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지시를 받아 준비되는 세례여야 함.
-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자의 간증이 있어야 하며 세례를 받는 신자의 헌신이 축복되어 지는 세례여야 함
- 지역 교회에서 회원이 되는 회원권을 포함하여야 함.
- 신자들이 상호책임을 지겠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함.
- 죄를 씻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함 [실제적으로 살수세례(sprinkling), 관수세례(Pouring), 침수세례(immersion)의 물리적 방법은 신학적인 내용에서 부차적인 문제이다.]
- 세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는 죄의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맺는 언약,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언급되는 삼위일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
- 세례식에는(장로/집사, 부모, 멘토, 배우자 등의) 간증을 포함하여도 좋음.
- 세례식은 성찬식으로 절정을 이룸.

세례의 준비는 실제 세례를 받는 날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하도록 한다.<sup>22</sup> 새로운 크리스천으로써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안내 사항들은 세례 당일 전부터 제시되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활동과 교훈, 교회 생활 등으로 안내되도록 한다. 처음부터 회중의 여러 동료들과 함께 체험한 은혜와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각 신자들이 간증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은 세례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예수와의 약속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과 회중과의 약속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해주기도 한다. (마태복음 10:32-33) 최근에는 간증이 세례식 바로 전에 행해지기도 한다. 이 전에는

세례를 베풀기 일주일 전 혹은 그 이전에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을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크리스천에 대한 확증을 주기도 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을 위해 두 명의 증인을 세우기도 한다. 현재 세례를 받는 사람의 멘토나 파트너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 세례식

세례식의 완전한 의미는 설교를 포함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주의 만찬을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된다. 참작해야할 특별한 상황들을 제외한다면, 세례는 평소에 드리는 회중 예배의 맥락 속에서 진행된다. 물을 부어서 세례를 줄 경우(pouring)에, 목회자는 그릇으로부터 양손으로 물을 떠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일정 양을 붓거나, 장로가 주전자의 물을 목회자의 손에 부은 뒤 이를 세례를 받는 사람의 머리위에 부어서 세례를 준다. 관수세례의 경우(sprinkling)에 목회자는 물그릇에 손가락을 담갔다가 세례를 받는 사람의 머리위에 한번 혹은 세 번 뿌려서 세례를 준다. 침례의 경우(immersion)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목회자에 의해 완전히 물에 담가졌다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는 뒤로 물속에 잠기도록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을 취한다. 세례식을 돕는 집사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안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침례의 현장에 참석하도록 한다. 시설로 인해 침례를 줄 수 없는 교회에서 침례의 장소를 선택할 때는 침례를 베푸는데 방해받지 않을 만한 장소나 의미 있는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 위엄 있는 장소를 택하도록 한다. 만약 세례가 늘 모이는 예배 장소에서 시행되지 않는 경우이라도, 모든 성도들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어떻게 세례식이 준비되든지 세례식에 중요하게 관련된 예배 인도자들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부(the Father), 성자(the Son), 성령(the Holy Spirit)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다 다양한 성경적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비록 마태복음 28장의 형식이

가장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세례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신약성경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세례식의 형식은 대안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 교단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써 삼위일체 형식은 기독교 역사에 걸쳐 사용되어 왔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례의 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다.<sup>23</sup>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형식 없이 받은 세례는 무효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이 없이 받은 세례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형식 없이 받은 세례는 다른 기독교 공동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세례는 축복의 기도와 함께 끝난다. 때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 위에 성령으로 기원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24절은 이러한 축복의 간단하고도 전형적인 예로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 새로운 신자들을 봉사의 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 사역의 확장이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성경구절을 선택해서 그 구절을 회중 앞에서 읽어주는 것이 관례인 경우도 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거룩한 입맞춤이나 교제의 악수를 하는 등 상징적인 환영의 제스처와 함께 회중으로 받아들여진다.

### 세례식찬송들

- “순종하라” (『곡조있는 기도』 51)
- “정한 물로 우리 죄를” (찬송가 224)
- “실로암 물가에 핀” (찬송가 225)
- “성령으로 세례 받아” (찬송가 226)
- “날 새롭게 하소서” (『곡조있는 기도』 43)
- “성령이여 능력으로” (『곡조있는 기도』 46)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복음성가)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찬송가 283)

“정한 물로 우리 죄를” (찬송가 224)

### 세례와 관련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19-20, 요한복음 3, 로마서 6:1-4, 마가복음 10:38, 요한복음 4:1, 갈라디아서 3:2-7, 누가복음 12:50, 사도행전 2:38-39, 요한 1서 5:7-8

### 세례식을 위한 장식

세례식이 관수례나 살수례로 진행될 경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배 당 앞의 탁자 위에 투명한 유리 주전자나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아둔다. 세례식과 관련된 (손으로 만든 이불이나 깃발, 현수막 혹은 자수 장식 등) 배너를 만들어 걸어 놓는다. 세례식과 어울리는 색상은 파랑색과 은색(물), 빨간색(불, 그리스도의 피), 흰색(순결)이 있다. 하얀 향초를 준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게 해도 좋다.

## 세례식

### 시작하는 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8-20)

이러한 예수의 명령과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선택에 대한 증인이며, 세례의 동

료들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며,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게 하십니다. 세례는 믿는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교회의 활동입니다. 개인의 행동으로써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 자신의 오래된 자아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자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 질문들

\_\_\_\_\_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모습들을 포기하고 구주(Savior)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당신의 주(Lord)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주께 복종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답: 네.

\_\_\_\_\_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의 주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답: 네.

\_\_\_\_\_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권위와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답: 네.

\_\_\_\_\_는 이 교회에 권고를 주며 또 교회의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답: 네.

\_\_\_\_\_는 교회의 선교에 기쁘게 참여하겠습니까?

답: 네.

## 세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권면과 희망의 말씀

### 세례

\_\_\_\_\_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따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_\_\_\_\_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결한 마음과 의로운 영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_\_\_\_\_에게 주신 선물을 사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_\_\_\_\_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거룩함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_\_\_\_\_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간구하며, \_\_\_\_\_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환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_\_\_\_\_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며, (일어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음과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교회에 선포합니다. (필요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줌)

\_\_\_\_\_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자신을 드리는데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며, \_\_\_\_\_의 존재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약수)

### 회중의 고백

우리는 \_\_\_\_\_가 우리의 형제/자매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동료로서 함께 짐을 지며 세상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 세례식과 관련된 기타 질문들

(a)

당신의 죄에 대하여 참회의 마음이 있습니까?

답: 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성령하나님을 믿습니까?

답: 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인생 동안 어린양이신 예수를 따르기로 약속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잘못된 고통에 대하여도 무저항의 정신으로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답: 네.

당신은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답: 네.

(b)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의 회중이 당신의 신앙 고백을 공식적으로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 교회의 회중 앞에서 당신은 악의 세력과 악한 일들을 포기할 뿐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엄숙히 선포하겠습니까?

답: 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본성을 회복시키시며 몸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답: 네.

당신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위해 드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답: 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인이 되시며 이 믿음과 사랑이 지속되도록 은혜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c) 아주 간단한 예식을 위한 경우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답: 네.

예수께서 당신께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답: 네.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답: 네.

당신은 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원하십니까?

답: 네.

## 다른 세례의 형식들

(a)

\_\_\_\_\_의 신앙 고백에 따라 창조자와, 구원 주와,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b)

\_\_\_\_\_의 신앙 고백에 따라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 세례를 마치는 축복 기도

(a)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성령께서 수면을 따라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노예에서 자유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

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깊은 물을 건너시고 다시 살아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이 세례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며, 우리도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_\_\_\_\_께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기쁨과 시련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며 \_\_\_\_\_가 항상 당신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_\_\_\_\_가 항상 당신의 은혜를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요 선생이신 성령 하나님, \_\_\_\_\_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_\_\_\_\_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c)

교회의 고대 전통을 따라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제자장으로 살도록 위임합니다. 이 회중의 회원으로서 세례를 받은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섬기는 사역에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도록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소서. 아멘.

(세례를 받고 이러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목사의 기도와 함께 일어난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낯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 환영을 위한 다른 표현들

(a)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로서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_\_\_\_\_가 그리스도의 교회안의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_\_\_\_\_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당신을 격려하며, 기쁨 안에서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며, 고난에 처할 때 당신과 함께하며, 혼동의 시간에 당신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며,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b)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이는 당신이 빛이 되시며 주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길을 신실하게 걸어 가십시오.

이제 교제의 손을 당신께 내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c)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당신께 의로운 교제의 손을 내밀며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 \_\_\_\_\_를 환영합니다.

## 회원권 이전

새로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일 때, 특히 예배, 교제 및 여러 봉사 활동에 관심을 보이게 될 때, 이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공식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다른 메노나이트 교회나 일반적인 교단 배경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때 이전 교회로부터 회원권 이전 편지나 그들의 신앙을 재점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회원권 이전을 위해서 가장 존중 되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 및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동시에 회중은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자연스러운 환경이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클래스나, 신앙을 재점검하는 과정, 후보광고를 통한 초청, 기존 회원들이나 목회자에 의한 직접적인 권면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회원권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르는 것을 권장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로부터 추천서나 회원권 이전 편지를 요청하도록 한다.
2. 회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회중은 이들의 신앙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한다.
3. 회원을 받아들이는 목사나 교회 회중의 대표(위원회 위원장/대표)는 회중과 교



회의 리더들에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린다.

4. 다른 교단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의 신앙을 근거로 하여 세례를 주도록 초청해야만 한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 개인이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성인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회원권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바람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회원권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신앙고백과 믿는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의 모습,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전에 속해 있던 교회에서의 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언약의 갱신

교회 회원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회원들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교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신자들의 처음 헌신이 부족하게 되고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생기며 회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상처, 필요, 염려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적절하게 협력하지 못하게 되는 그들의 환경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은혜롭게 그들을 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회중의 활동에 참여하며 회원권을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회원으로서의 언약이 무엇인지 갱신하거나 축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세례식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등 언약의 갱신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 2) 헌신을 새롭게 하며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성찬 예배를 드린다. 3)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크리스천의 제자도에 대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 <다음호에 계속>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호, 계발, 평화를

MCC동북아시아지부 김성한 신임 대표를 만나다

### 1. 먼저 카프저널 독자들에게 소개 및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 3월 21일부터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 Mennonite Central Committee, MCC 동북아시아지부 대표로 일하게 된 김성한 형제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춘천에 있는 예수마음교회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카프 저널을 통해 여러 차례 인사드렸지만 오늘 인터뷰는 MCC 대표로 일하게 되면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 2. 많은 분들이 김성한 대표님이 어떻게 메노나이트 신자가 되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AMBS 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에서 평화학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공부했던 것이 메노나이트로의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평화신학을 배우는 동안, 강의실 바깥에서, 거리에서 평화를 말하며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훌륭한 어르신들을 만났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강의실보다 강의실 바깥 경험이 저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칼리지 메노나이트 교회>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MCC를 통해서 해외 봉사나 대체복무를 다녀오셨는데 이분들이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일관된 제자도를 보여 주신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3.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한국교회가 말하는 교회 중심의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영성과 대비가 되었을 것 같은데, 메노나이트들의 평화활동에 대해 이질감은 없으셨는지요?

제가 자라왔던 장로교단이나 일했던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 강조했던 복음에 대한 강조,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에 대한 강조나 경험이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신앙의 어떤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수업시간에 대니 위버라는 메노나이트 신학자가 쓴 <Nonvio-

lent Atonement / 비폭력 대속이론)과 같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형벌대속론을 중심으로 구성 된 이른바 “복음의 핵심”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아무리 평화를 강조한다고 해도 ‘비폭력 대속이론’은 너무 억지가 아닌가 하는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3.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시는 일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MCC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MCC는 어떤 단체인가요?**

2020년, 작년이 MCC 100주년을 축하하는 해였습니다. 1920년에 우크라이나 지방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메노나이트들이 살던 곳인데,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 지금의 MCC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안에는 여러 그룹들이 있지만 구제에 있어서는 함께 하자고 결의하고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된 <월드비전>이 지금은 큰 단체가 된 것처럼 MCC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호, 개발, 평화’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1951년 ~1971년까지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구호 및 전후 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1971년 우리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떠났다가 1995년부터 북한에서 다시 구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중국에 있던 MCC 동북아시아 사무실이 춘천에 오게 되면서 현재 MCC는 남과 북 양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4. 대표 이전에 먼저 평화교육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화교육가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평화교육가’는 다소 생소한 일로 들릴 텐데요. 왜 이런 역할이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CC는 구호, 개발, 평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접근합니다. MCC는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구호와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구호와 개발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요. 분단이 장기화 되고 7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전쟁 가운데 성장한 남한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곳, 평화의 더 큰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회안의 평화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수녀원부터 인문학 강좌

와 같은 다양한 현장에서 강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글쓰기, 평화화 전공의 목회학 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 5. 평화교육을 한국교회와 함께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교회 혹은 신앙이라는 것이 100%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요소들과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장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다양하게 작동했던 인간들의 역할, 문화, 역사, 사회적 상황과 조건이 같이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한국 근현대사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했습니다. 평화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지점은 교회가 자신을 둘러싼 폭력과 구조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며, 다른 모습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으로 폭력적인 구조를 가져오고 강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서를 읽으면 ‘평화’가 중요한 말로 등장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말을 너무 낮설게 받아들이거나, 우리 삶과 잘 연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과 같은 영적인 언어로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 하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소위 이단이라는 여러 그룹들이 평화를 가져다 써버렸기에 평화라는 말을 하기에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6. 한국인으로서 MCC의 대표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MCC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적, 재정과 같은 많은 자원이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MCC를 포함한 서구 백인 중심의 기독교 기관들은 ‘식민주의 colonialism’의 질문, 예를 들어 보내는 곳과 받는 곳, 중심과 변두리와 같은 크고 깊은 질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어느 나라 출신의 대표가 세워져서 그 대륙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최근 시작되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백인이 아닌, 그리고 현지 사람을 대표로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저의 직책을 대표라고 소개하지만, 저의 타이틀은 ‘representative’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이 한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북한과 동북아시아라는 구체적인 지역과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호, 개발, 평화’를 위해 일하는 MCC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MCC 혹은 넓은 아나배티스트-메노나이트 세계에 남북한, 동북아시아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대표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받은 교육이나 경험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7.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요,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은 어떤 책인가요?

한마디로 반성문입니다. KAF 저널을 읽으시는 분은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을 비틀어 놓은 제목이라는 것을 눈치 채셨을 것 같습니다. 요더는 실패했지만 “예수의 정치학”을 통해 표현되었던 아나뱃티스트의 평화신학은 요더의 실패를 넘어서,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는 바램을 담고 있습니다.

요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요더의 성폭력은 주로 1970과 80년대 초반에 일어났고, 이 전 모에 대해 2015년 1월 <Mennonite Quarterly Review>에 실린 내용을 대장간에서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라는 단행본으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제 책은 요더의 성폭력 자체보다는,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실패를 했는가? 무엇이 문제였고, 그 뒤로 어떤 지점에서 변화가 만들어 졌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무엇인가?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더의 이야기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의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사실 너무 무겁고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를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요더의 실패는 심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의 성폭력이라는 동그란 네모라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이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반성할 때 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들려져야 이런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평화교회에 대한 지향은,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폭력도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할 때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평화신학의 의제들을 진정성 있게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문제는 아프고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드러내야 새로운 교회와 평화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만권 정도 팔려서 큰 교단 장로 연합회 같은 곳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8. 꼭 많은 분들이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동북아 화해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화해포럼은 무엇인가요?

화해포럼은 올해가 8년째 이구요. MCC 동북아시아의 주된 일은 남북한의 일

이지만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안에서 어떻게 평화의 사역을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포럼입니다. MCC와 Duke대학 화해센터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Great Lake Initiative>라는 화해 플랫폼을 만들어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을 통해 오랫동안 내전, 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 안에서 화해를 이루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MCC는 Duke대학 화해센터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화해포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미국 등에 있는 목회자, 수녀, 신학자, 평화활동가와 같이 다양한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동안 모여, 각자의 나라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화해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배우고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가평, 나가사키, 홍콩 마카오, 제주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을 돌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하루 모였고, 올해도 “분열적인 소셜 미디어와 화해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6월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포럼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첫 주 주제 강의를 밴쿠버기독교세관대학원의 전성민 교수가 해주셨고, 넷째 주 강의를 홍콩 충치대학 알렉스 입 교수가 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 기반을 둔 성찰과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에는 인도네시아, 페루, 르완다,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해의 사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 9. 이제 마지막으로 저널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끝인사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MCC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두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는 1960년대 남한에서 MCC가 배급하는 고기통조림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MCC봉사자와 하얀 한복을 입으신 어머니가 담겨있습니다. 다른 한 장의 사진은 2019년 가을 저의 동료인 제니퍼가 북한의 어느 병원 식당에서 MCC가 보낸 고기 통조림이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남과 북 모두에서 MCC 로고가 찍힌 고기통조림을 발견하는 경험은 여러 생각을 갖게 합니다. MCC는 한국의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구호, 개발, 평화의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10.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문선주 총무)

## 함께 걷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

### 1. 아나뱃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 인 계기가 있나요?



박숙경 자매  
메노나이트 서울모임

남편김복기 형제의 유학을 준비하던 기간 당시 춘천

지역에 성경적 교회 회복이라는 모임에 부부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역할을 고민하던 몇 가정이 성경공부 모임과 책모임을 함께 하던 모임이었는데 그 곳에서 먼저 『재침례교도들의 역사』라는 책을 통하여 아나뱃티스트와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캐나다 위니펙지역에 있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성경대학CMBC에서 신학과정을 듣고 귀국하신 이윤식 목사님으로부터 학교를 소개를 받게 되어 1995년7월 여름에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면서 아나뱃티스트와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CMBC에서 영어와 신학공부를 하던 4년 동안 우리가족은 찰스우드 메노나이트교회Charleswood Mennonite Church에 다니면서 책속에서만 듣던 메노나이트 교회의 생활 면모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성경의 복음서에서 듣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교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뱃티스트의 신앙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2.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북미에서 경험하게 된 아나뱃티스트의 신앙은 성경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적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드러난 ‘진정한 나의 이웃’이 바로 그들이었고, 겸손하고 겸손한 삶은 기본이었으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가려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활동사역들이 일만마을상점Ten Thousand Village, 구제상점Thrift Store, 노숙인과 난민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평화사역팀Christian Peacemaker Teams, 타종교와의 대화 등 어렵다는 주제들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더 이상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라 그리고 국가 간의 이슈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더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들과 함께 봉사자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아나뱃티스트와 메노나이트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낯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재해석 할 때 상충되는 지점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1세대 한국아나뱃티스트로서 어떻게 다음세대로 역사를 이어가야할지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 3. 현재 하시는 일이 아나뱃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함께 캐나다 메노나이트에서 Witness Worker로 한국에 파송되어와 있으므로 하는 일들이 당연히 아나뱃티스트의 신앙과 깊은 연관성을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주셔서 현재 저는 주로 초중 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명의 아나뱃티스트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아이들과 부모님을 대하고, 상호책임의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실에 반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매일 함께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작은 영어학습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질문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아는 만큼 행동 한다’ 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기간에 더불어 위의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성경의 가르침 함께 경험하고 습득하여서 또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뱃티스트 신앙 혹은 한국교회, 혹은 지역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회 등등)**

제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극히 개인적인 믿음 생활과 구원을 강조해 왔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보다는 개 교회와 교단 중심의 신앙 활동이나 교세확장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상호책임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사회에서 놀리고 외면당하며 아픈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밀어내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이슈에 있어 이견이 있으면 은근히 거리를 두었던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5. “한국” 아나뱃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뱃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

## 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아나뱃티스트의 특징 중 하나를 ‘인내와 헌신’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의 율령종교적, 문화적가치의 전환 벗고 변화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결과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가 서서히 알려지는 것은 한국 아나뱃티스트 1세대들이 좌충우돌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인내와 끊임없는 헌신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한국 아나뱃티스트들이 북미 아나뱃티스트와 세계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들과 교제하면서 나름대로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연합회MCSK가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세계 아나뱃티스트들과 연대하여 세계평화와 정의구현 그리고 인종차별과 환경문제 등에 한 목소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개개인으로써 교회공동체로써 교회연합회로써 일상에서 아나뱃티스트들의 중요한 가치들인 제자도, 공동체 그리고 평화를 잘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 6. 앞으로 한국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저는 한국 아나뱃티스트 공동체가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개 교회나 교단 안에 갖혀 있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이야기가 있듯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상호책임의 관계로 함께 성장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가르치심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삶의 일상인 개인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또한 국가에서 실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평화를 공부하고 일하는 멋진 삶

### 1. 아나뱃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아나뱃티스트를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아나뱃티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비슷하여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계기는 없었고, 자연스럽게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따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대통령이 하는 행동과 말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했었어요. 그래서 탄핵 집회도 참여했었고, 맨 앞에서 경찰들을 마주 보며 시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집회가 진행되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더 커지고 괴로웠어요. 집회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회가 열려 서울에 갔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광화문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전과 달라진 현장을 답답해했어요. 당연히 경찰과 대치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왜 이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고, 한쪽에서는 풍물을 치고, 한쪽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비슷한 분위기에 집회가



배중열 형제  
논산평화누리메노나이트교회

몇 차례 더 있고 나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였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러한 형태에 집회가 더욱 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저에게 ‘비폭력이 평화를 만든다’ 는 말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그 뒤로 평화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자연스럽게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따르게 되었어요.

## 2.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알고 추구하고 살면서 옳고 그름에 잣대를 정확히 짚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평화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많이 바꿔줬어요. 이전에는 제가 속한 집단학교, 직장에서 약자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방관하거나 외면했어요.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모두 그렇게 하나까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그 틀을 깨버리면 혼란스럽고 다수의 평가가 깨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를 무시하고 당연하다고 인정했었어요. 불편한 관계가 불평등한 걸 알면서도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깨달았어요. 불평등한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담하는 것이고, 약자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 뒤로 약자, 소수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려 노력하고, 행동하고, 불평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중이에요. 약자가 존중받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평화라는 걸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알게 되고 저에게 좋은 변화를 주었어요.

약자의 편에 설 때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오는 좌절감에 힘들어했고, 나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었어요.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소외시키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약자였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었고, 웃어주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당

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기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배워가고 있어요.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믿으며 제가 자주 마주하는 고민은 “내가 다니는 교회 교단이 어디야?”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할까?’ 이에요.

### **3. 현재 하시는 일이 아나뱃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생태와 농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농업대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기존의 많은 농부님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을 뿌리며 생태를 파괴하는 농업을 많이들 했어요. 물론 지금도 대부분 그런 농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환경 보존이나 생태보다는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그래야만 성공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관행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당연했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님들도 존경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 농업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작물에는 어떤 영향을 주며, 그걸 먹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저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들을 택하고, 일을 좀 덜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기보다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자연스럽고 힘들더라도 내가 허리 숙여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앞에 있는 작물들을 잘 길러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자연과 인간을 평화롭게 이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이 제가 농업을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농사 짓는 게 돈도 많이 벌고, 작물만 잘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TV 보니까 연 매출

몇억씩 번다더라”라고 말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말보다 평화를 위해 공부하고 일하려는 게 멋있다는 말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언제쯤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 **4. 앞으로 한국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익숙함을 경계할 수 있고, 구성원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생각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폰을 걸고 아빠와 내기를 했었어요. 그때 6시간 정도 걸리는 등산로였고, 5시간 안에 정상에 갔다 오면 핸드폰을 사준다고 하셨었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같이 갔던 다른 가족들은 잠깐 쉬었다 가자고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초조했던 저는 “먼저 갈게”하고 뛰어 내려왔어요. 이를 악물고 뛰어 내려왔고 내기에서 이겨 새 핸드폰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의 산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냄새도, 온도도, 색도 기억해 낼 수 없었죠. 내기에서 이겼지만 5시간 동안 산을 오르며 내게 있었던 많은 것들을 놓쳤어요.

최근에 제주도에 있는 물영아리오름을 갔었어요. 천천히 오름을 구경하며 올라갔어요. 그러자 나무의 색, 향, 질감, 숲의 분위기 등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름에서 내려오고 나서 스스로 만족했어요. 아나뱃티스트 공동체 또한 내부에서 각자가 느끼는 것들을 나누고, 속도를 맞춰 나가며,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려고 노력한다면 각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논산평화누림교회

### 출애굽기 6개월 만에 마침

장장 6개월 간의 『출애굽기』 공부부를 6월 19일에 마쳤습니다. 5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준비하고

한주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주의만찬을 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것으로 재료를 만들고 큰 양푼에서 비비고 각자 덜어서 먹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시간은 고소하고 신선한 음식 재료의 향 때문에 다들 배고픔을 참았다고 털어놓으며 소박한 만찬을 했습니다.

이후 2주는 일과 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으로 나눔을 했고, 또 한주는 『피할 수 없는 은혜』라는 메노나이트의 은혜로운 간증이 담긴 40인의 작은 이야기를 읽고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성서연구의 몇달간의 공동 묵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할 때는 비블리오드라마를 활용해 좀더 입체적으로 말씀을 우리 삶으로 끌어안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두권의 책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평화누림교회 지체들의 신앙과 삶의 근육도 힘이 붙기를 ...

### 2021년 메노나이트 총회

2021년 한국메노나이트 총회가 비대면



으로 열렸습니다. 2일간의 온라인 미팅과 성찬, 주제강연, 교회소개, 새회원 환영, 경매, 예배까지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배용하 형제가 MCSK의 대표로 앞으로 2년간 섬기기로 되었고, 평화누림교회의 대표는 고향준 형제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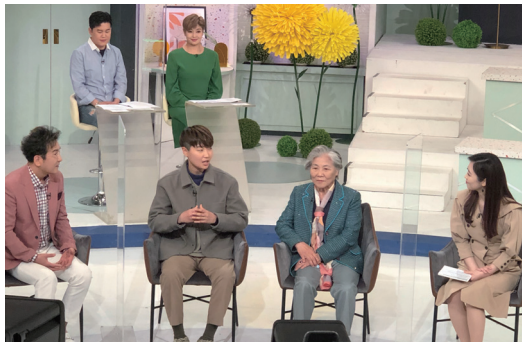
### 부활절 예배

이번 부활절에는 교회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고향준 배용하 형제가 울동으로 재롱을 부렸습니다. 또한 보물찾기를 했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마음을 담아서 먹거리 주머니를 만들어서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멀리 춘천에서 자매님들이 방문하셔서 넉넉하고 의미있는 부활절이었습니다.



### 안치연 자매님 TV출연

안치연 자매님과 손녀 배꽃나라가 KBS2티브에 출연했습니다. 연예인 스타일이신 할머니는 간만에 얼굴에 화색이 도셨습니다. 방송을 보고 여기저기서 인사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 봄봄도서관과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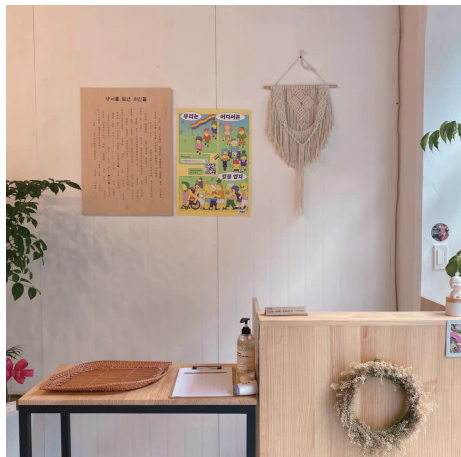
봄봄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몇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오래 봄>이라는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는데 박민서 자매와 배꽃잎 자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산글꽃기자단>은 배용하 형제가 진행하는 것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 논산의 마을학교와 초등학교연합기자단 2곳의 학생에게 글쓰기와 신문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아이들을 보기 힘들어지는 시기에 아이들이 글쓰기와 책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5명의 여성분들이 하는 책읽기 모임 <낭독의 발견>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좀더 편하게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배꽃잎자매 <냉이>

#### 제로 웨이스트 샵 개업

배꽃잎자매가 친구와 함께 논산시내에 포장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샵을 열었습니다. 첫달부터 계획했던 월급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논산의 명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의미있는 소비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배꽃잎 자매가 멀리서 물심양면 함께 해준 형제자매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달라네요. ^^

### **미얀마 교육단체 후원과 옥바라지선교센터 후원 계속**

옥바라지선교센터의 사역을 후원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주간의 회의와 알아봄을 통해서 한 곳의 미얀마 단체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파이선교회(한상영선교사) 처럼 교육과 관련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꾸준히 마음을 품고 있는 미얀마의 단체인데 기도로 물질로 돕는 손이 되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 **지역의 벗들과 진공관앰프 제작**

함께 사귀을 하고 있는 지역분들과 진공관앰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너시간씩 3주에 걸쳐서 납땀도 하고 나사도 박고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엄살이 심합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뭔가를 만들며 성취해가는 것이 참 흐뭇합니다.

〈정리 : 박민서 자매〉

## 삼송동안 교회이야기

### 1월 소식

부디 살아남으소(丑)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  
라” (삿1:2)



‘신축년’을 시작하며 지인이 ‘열두 마리 소’로 새해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덕담은 “부디 살아남으소(丑)”

지난 한 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길 소망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이 각자의 손에 넘겨주신 ‘이 땅(?)’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삼송동안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소그룹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ㅍㅍ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탄절예배와 신년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만, (변화를 줄 수 없는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인) 비신자/낙심자에게 복음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2월 소식

삼송동안교회에서는 예배 외에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활성화 중입니다.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교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ㅍㅍ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 2기 중보기도학교를 끝까지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계기로, 교회에 (새벽기도회를 포함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비신자/낙심자에게 복음전하는 일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3월 소식

삼송동안교회에서는 대그룹 예배 외에, 본격적으로 소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공부와 순모임을 개강하여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삶시리즈, 사사기, 복음 등)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청소년카페 <와락>도 아이들이 개학함에 따라 조금씩 활기를 더해갑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이 잘 나누어져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 4월 소식

삼송동안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3주년 감사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 소중한입니다. 물론,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온라인으로 드렸고, 부활절 감사예배 후(코로나로 인해 고민하다가) 이웃에게 계란을 나누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 5월 소식

### 주께서 하시는 일

“그의 부모는, 주께서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삿14:4)

삼형제 중 막내(올하)가 저희 가정의 마지막 어린이로서(중딩부터 청소년^^) 마지막 어린이날을 보내며, 아이들이 성장했음을 봅니다.

또한, 매주 한 번 진행되는 ‘가족서클’을 통해 아이들이 성숙했음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을 통해, 저희 부부도 날마다 성숙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결과라 믿습니다.



### 기도제목

1. 신목사와 가족(김숙영, 주현, 하원, 올하)  
-가족 건강과 ‘가족서클’을 위해
2.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마음의 질병을 가진 자들
3. 비신자/낙심자 사역을 위해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4. 청소년cafe <외락>의 운영을 위해
5.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 승합차할부금 마련을 위해

<정리: 신동희 목사>

## 예수촌교회

### 얼굴을 마주하는 삶

예수촌 교회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한국교회의 대면 예배 방식의 고집을 회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장기간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줌을 이용하여 예배하고 소그룹 성경공부, 고을모임을 진행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도 인원수를 맞추는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의논해오고 있다. 한편, 이에 따른 우리 안의 공백을 마주하게 된다. 얼굴을 마주하지만 숨결을 느낄 수 없고,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를 이어주는 일상의 소소한 끈을 회복하고자 한다.

### 부활절, 근화동 이웃과의 거리두기 만남

예수촌 교회가 근화동으로 이사하면서, 근화동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첫 해에는 바자회를 개최하여 근화동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어버이날에는 준비한 삼계탕으로 교제를 하였다. 반장님을 통해 점심 급식 사업에도 봉사료 참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주일에 오



고 가며 인사했던 시간들이 줄어 들었다. 올해 부활절 역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별다른 행사가 없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웃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이에 근화동 28세대에게 선물을 드리게 되었다. 떡을 포장하여 입구에 놓아 드리는 방식으로,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원칙으로, 다소 거리를 두지만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자 하였다.



### 식사 교제비 지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고을단위로는 어떤 모임도 불가능해졌다. 함께 애찬을 나누는 지도 일 년이 훌쩍 넘어 간다. 예수촌 교회의 애찬은 실로 풍성하고 사랑한 만큼 맛있다.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 후 식사를 꼭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릴 정도였다. 또한 주일 내내 교회에서 머물면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곤 했던 예수촌 교회의 식사 교제가 모두 중단되었다. 공동체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 끝에 작은 단위의 교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식사 교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4인 이하의 식사비 지원을 5-6월 안에 한 시적으로 지원하며 교제를 독려하였다. 도시락을 주문하여 함께 나누기도 하고, 야외에서 간단한 간식을 가지고 만나기도 하며 교제하였다.

### 5월 야외예배는 취소하고, 오후 산책으로

야외 예배를 작년에 이어 취소하였다. 대신 예배 후에 서면에서 함께 걷기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가진 작은 산책 모임이었다. 열 명 남짓 지체들이 모였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가벼운 음료 한잔을 들고 걸어보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지체들은 서로를 반가워하였다. 올 2월에 태어나 유모차를 타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아기

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출산과 육아로 온라인에서도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형제와 자매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축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5월의 싱그러운 공기로 서로를 채우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 애민원과 예수촌 교회의 협약

애민 보육원과 예수촌 교회가 협약을 맺게 되었다. 2년간 재정 후원과 보육시설 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하며 아름다운 행보가 모두에게 좋은 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리: 김보람 자매〉



## KAC 소식

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는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전폭적인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 내기 위한 다양한 모임을 다채롭게 펼쳐 왔습니다.

### 2021년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 <성경이 말하는 평화>

매해 1월 셋째 주에 열리는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가 올해에는 팬더믹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1월 21-22일 (목-금) 2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은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신약을 가르치시는 성서학자 김근주 교수님과 권연경 교수님을 초청하여 성경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의미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은 그 평화의 가치를 살아내는 실천적 평화의 의미에 대하여 가톨릭 사제 강주석 신부님과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형제이자 MCC 사역자인 김성한 대표님에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여 분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시대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갈구하는 진지한 모습은 한국교회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 리본모임과 회복적 정의 세미나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2021년의 첫 주제로 삼고 리본모임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트라마우 이해와 치유>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갈등영향평가와 평화세우기> <회복적 정의의 정

치학) <평화의 바람이 분다> 5  
 번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강사  
 님들(안은경, 이재영, 김가연,  
 김복기, 박성용님)과 함께 모  
 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히 5월-7월에는 한림대의 지  
 역사회 갈등전환센터와 함께  
 공동주최로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지역사회에 회복적 정의  
 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더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국제 유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국제유학생(ISF)사역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는 어떻게 캠퍼스에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학생들  
 을 만나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zoom  
 을 통해서 1:1 한글교육으로 방향을 잡고 1학기 사역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  
 다. zoom수업을 하는 관계로 13명의 학생들은 춘천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학생들 중,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태국에서



zoom수업에 들어왔고, 대전이나 서울로 학교를 옮긴 친구들도 한글수업에 함께 했습니다. 매주 줌을 통해 수업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섬세한 사랑이 유학생들로 하여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기간을 보내다가 다시 8월말에 2학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중 2편!〉

1.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신 강호정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 직접 찾아 오셔서 맛있는 치킨 브런치를 사주신 정현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날에 ISF에서 보내주신 치킨을 친구들과 함께 잘 먹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의학과 크리스디안티)

2.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우리는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이자 우리 친구이자 좋은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인도 유학생부인 아니파)

### 매주 만나는 가족과 같은 인도친구들

올해 ISF 모임을 통해 저는 인도에서 온 유학생부인인 3명을 소중한 친구



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과 달리 바쁜 학과 스케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춤수업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과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부인들이라 대면으로 매주 만났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도 대화하기 시작한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주 만날 때마다 일취월장하는 한국어 실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되도록 친구들에게 춘천의 아름다움 곳을 보여 주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짜고, 특별한 만남을 주선을 하면서 보내다 보니, 인도 유학생 3명은 나의 가장 중요한 인맥이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을 이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복적 정의 및 평화를 위한 활동**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를 처음 경험하면서 모든 모임이 경직되었지만 올해는 마스크를 모두 쓴 채로, 모임을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적 정의 평화감수성 훈련입니다. 한림대 갈등전환센터에서 훈련을 이수한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학교에 들어가며 평화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Top-Down식

의 대화가 아닌, 모든 권한을 1/N로 공평하게 나누어 자신의 속마음을 안전하게 나누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자신감을 심어 줍니다. 평화감수성훈련을 마치고 나서 함께 소감을 나누는 학생들의 평안한 얼굴에서 이 훈련의 매력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평화훈련을 들어가는 선생님들과 매주 모여 회복적 정의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적 정의 운동이 KAC를 통해 교회로까지 확산되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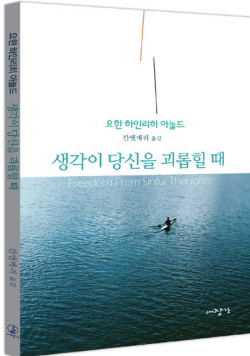
### **KAC의 20주년 기념 한국 메노나이트 역사책 출간예정**

2001년 11월 2일 한국땅에 처음으로 아나뱃티스트운동을 시작하고 어언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KAC의 20주년을 기념하면서 MCC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집대성하는 역사책을 출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진들에게 부탁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문선주 총무〉

## 생각이 당신을 괴롭힐 때-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하여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 지음 | 칸앤메리 옮김 |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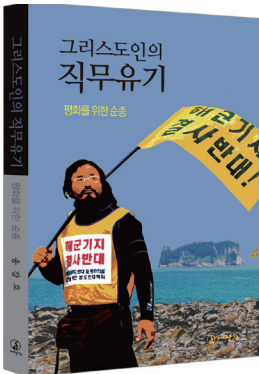


악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독자들이 '의지' 와 더 깊고 본질적인 갈망인 '양심' 을 구별해  
 본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지는 유혹이 찾아올 때 그 같은 생각이나 욕구를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양심 즉 내면의 빛은 우리를 순결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다.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양심이 주도권을 잡을 때,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

##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 - 평화를 위한 순종

송강호 지음 | 대장간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예언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불가역적인 현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이다.”

이 책은 평화의 목시를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내야 할 과제라고 믿고 실천하는 평화의 행동을 살아가는  
 송강호의 육성이다. 전쟁없는 세상은 신기루가 아니고 앞당  
 겨야 할 미래이며, 이 세상은 전쟁없는 세상을 살아내는 자  
 들에 의해 실현된다는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  
 회의 신자들의 삶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  
 무를 유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다.

## 아나뱃티스트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교회 [www.sbroomchurch.org](http://www.sbroomchurch.org)(셀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jesusheartchurch.org](http://www.jesusheartchurch.org)(예수마음교회)

[www.jvchurch.onmam.com](http://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 [www.facebook.com](http://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단체 [www.kac.or.kr](http://www.kac.or.kr)(KAC) ■ [www.narpi.net](http://www.narpi.net)(NARPI동북아평화훈련원)

[www.kopi.or.kr](http://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 [www.daejanggan.org](http://www.daejanggan.org)(도서출판 대장간)

<http://wcfgw.nayana.kr/xc/>(개척자들)

###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개척자들 국민은행 093401-04-124532 (사)개척자들

옥바라지선교센터 신한은행 100-033-703892 옥바라지선교센터

전쟁없는 세상 우리은행 1005-102-921333 전쟁없는세상

PIY(한상영선교사) 씨티은행 401-10725-261-01 한상영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타뱃티스트센터

##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KAF 재정 사용 내역(2020. 12. 26~2021. 6. 27)

이월 194,740

수입 840,000

600,000(예수촌교회), 120,000(정성한), 60,000(배용하),  
60,000(골대교회)

지출 790,000

790,000(저널 20호 제작/국내외 발송비)

잔액 244,740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 월5천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운영에 사용합니다.

KAF는 개인과 단체 정회원들의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용 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

## 아나뱃티스트가 뭐죠?

음 이긴 운동이야.

어떤 운동이냐고? 종목은 평화, 제자도, 공동체 등이야.

이 운동은 머리카락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썼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지.

예수님이 했던 일을 계속하는 운동이랄까...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세계의 다른 역사와 환경에서 평화교회를 추구하지.

역사와 문화와 성별이 다른데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싶을 정도로 잘 어울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깡깡해. 안 볼 때는 좀 살살해도 될 텐데

요즘말로 좀 짱세게 사는 편이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교리나 사람을 중심으로 토폴 뭉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잘 안 싸워

그냥 맞거나 때릴만큼 때리면 멈추겠지...

뭐 이런 배짱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멧집이 좋은 편이지

오백년 넘게 맞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살았는데도

지금도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말이지.

같이 해볼래?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아?